

이재용도 롯데 불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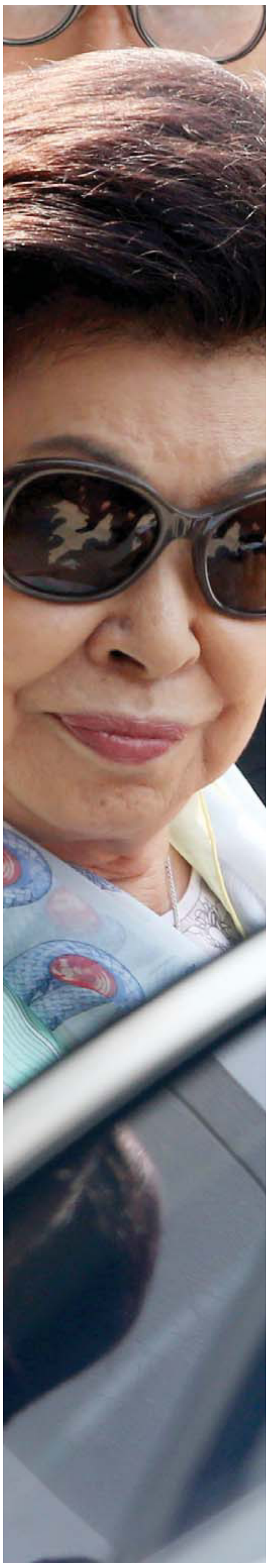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10일 월요일 제3276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7일>

코스피	2010.23	(−3.06)
코스닥	751.49	(+3.75)
금리(국고채 3년)	1.78	(−0.01)
환율(원·달러)	1166.70	(−1.40)

‘한정치산’ 최후의 일격?



신동빈 측, 신격호 치매설 퍼트려 ‘제정신 아님’ 기정사실화
신격호 한정치산 선고 땐 재산권 일본인 처 하츠코 손으로
하츠코 지난달 말 방한, 남편 상태 확인이 목적일 가능성



롯데그룹 측이 신격호(94·**오른쪽 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 재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신 총괄회장을 ‘한정치산자’또는 ‘금치산자’(국내법상 피한정후견인)로 만들기 위한 노림수일 수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현재 법적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88·**왼쪽 사진**)가 7월 말 시아버지의 기일을 이유로 한국을 방문한 것도 일본 현지 법원에 한정치산 등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신청할 수 있다. 피선고자의 재산관리권은 처나 아들 딸에게 사실상 전부 넘어간다.

신동빈(61) 회장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등의 주총에서 패배해 이사직에서 해임되더라도 마지막 회심의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셈이다.

9일 일본 재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의말을 종합해 보면 신동빈 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1차적인 법적 보호자인 일본인 처 시게미츠 하츠코를 중심으로 일본 현지 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해 치매·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를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나 심신미약 등으로 법률 행위를 할 만한 의사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롯데그룹 인사권 행사 등 모든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의사능력이 없음을 공식 확인하는 것이 법원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라고 말했다.

일본 민법에 따르면 한정치산자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분별 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으로 가정 재판에 의해 의무적으로 배우자 등의 보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뜻한다.

한정치산자는 보좌인(국내법상 법정대리인)의 보좌를 받게 된다. 보좌인은 법원이 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 등 중에서 지정한다.

보좌인은 재산의 매매·유산 분할 등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피보좌인(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본인)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재산 사용이 자유롭다. 중요한 사항의 경우도 피보좌인의 동의 하에 처리할 수 있다.

일본 재계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게 되면 롯데는 배우자 하츠코 손에 떨어진다”며 “이는 한·일 롯데그룹이 신 총괄회장이 제 정신이 아님을 주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일 롯데를 지배하는 회사는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광윤사다. 이들 회사는 한국롯데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7.17%를 가지고 있다. 특히 광윤사와 L투자회사는 신 총괄회장의 자산관리회사로 알려진 만큼 하츠코가 신 총괄회장의 재산 관리 권한을 갖게 되면 롯데홀딩스의 신 총괄회장 지분은 물론 L투자회사와 광윤사까지 거머쥐게 된다.

일본 재계는 하츠코가 신동빈 회장을 편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신 총괄회장이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게 되면 한·일 롯데는 하츠코와 신 회장의 손에 자연히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내에 ‘롯데는 일본 회사’라는 여론이 거센데다 한정치산 등 선고도 사실상 판사의 재량인 만큼 일본인인 하츠코가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치산 등을 추진하면 분위기상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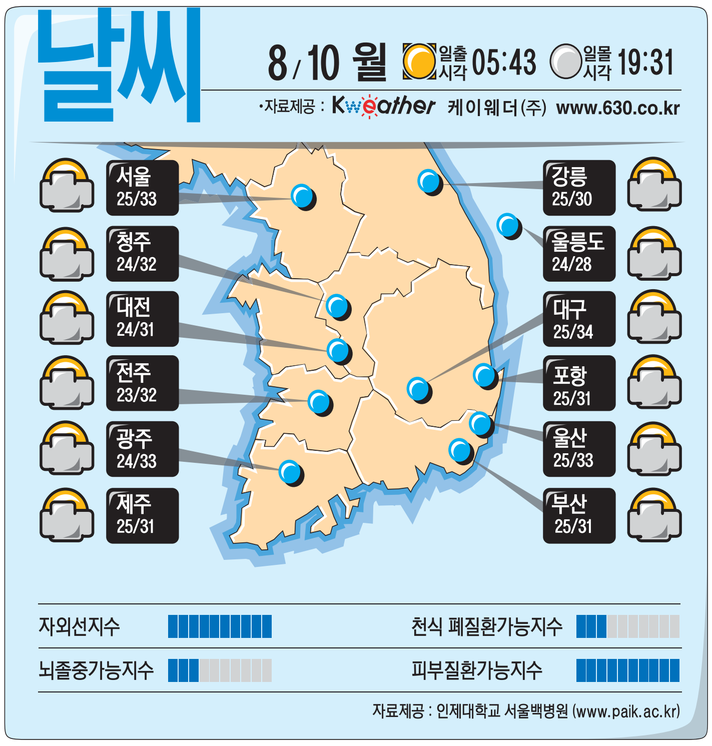
하츠코는 지난달 30일 국내에 입국했지만 정작 방한 이유라고 밝힌 시아버지의 제사는 참석하지 않고 사흘만인 이달 1일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다. 일 재계는 하츠코의 실제 방한목적이 남편의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국내에서는 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한정치산자 선고 소를 제기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력의 부재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일본 민법상 한정치산 · 금치산

정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식 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의 재산처분 및 관리권을 제한하는 것
요건	본인 · 배우자 · 4촌의 친족 ·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보좌인)을 지정해 선고
효력	보좌인은 피보좌인의 재산 처분을 대리할 수 있으며 매매, 분할 등 중요한 사항은 피보좌인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음



유통·경제

▲ 

롯데그룹측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제정신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재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신 총괄회장을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국내법상 피한정후견인)로 만들기 위한 노림수일 수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경기 부진으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영세자영업자수**가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연간 기준으로 1994년 이후 400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300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네이처리퍼블릭 등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세계 화장품** 시장 1위인 미국에 진출, 프랑스·일본 등 세계 유수의 브랜드와 경쟁하고 있다.

▲ **음료 업계**가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가운데 롯데칠성음료 '밀키스', 동아오츠카 '데자와', 웅진식품 '아침햇살' 등이 별다른 마케팅이나 홍보 없이 꾸준히 사랑 받는 제품들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 척결**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은 변제의무가 없다. 다만 법원의 지급명령에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채무를 상환할 경우 시효가 부활된다.

▲ 삼성물산 합병안에 손든 **국민연금**과 **KCC**가 막대한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서 3155억원, 제일모직에서 2826억원 등 총 5981여억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 **재건축·재개발 분양**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이들 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약경쟁률 상위 1~3위는 모두 부산과 대구에서 분양된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나왔다. 하반기에도 전국에 공급되는 재건축·재개발 분양은 총 1만5781가구(일반분양 7344가구)에 달할 예정이다.

▲ **지방 금융지주**들이 올 상반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금융지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인수합병과 사업 다각화 등으로 몸집을 키우고 내실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부활의 시동을 걸고 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 명함을 내민 바이오 기업들은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 이들 종목의 시초가는 모두 공모가 대비 100%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상승은 제약·바이오주의 업황과 향후 전망이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회

▲ 
건국대학교는 지난 7일 **백현동** 교수(동물생명과학대)가 달걀노른자에 들어있는 '포스비틴' 이란 DNA손상억제물질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로 미국 가금학회(Poultry Science Association·PSA)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동국대학교는 오는 11일부터 강원도 인제군 만해마을에서 '**2015 만해축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7회째로 열리는 만해축전은 설악과 금강을 주제로 만해(萬海) 한용운 선생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기리는 행사로 강원도와 인제군, 만해사상실천선양회·동국대가 공동 주최한다.

▲ 2014년 정부가 수여한 **훈장**의 86%는 퇴직공무원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2만1669건으로 2013년보다 8068건, 59% 급증했다. 이 같은 수치는 1999년 2만2526건을 수여한 이래 최대 규모다.

▲ **자동차** 구매자가 영업사원의 개인 계좌로 차 값을 지불하고 영업사원이 그 돈을 가로챘다면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제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 초안에 '사죄'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인 **사우델로르**(Soudelor)가 대만에 큰 피해를 준 뒤 중국까지 강타했다.

▲ 영국의 휴대전화 유통업체인 **카폰웨어하우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24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8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 앞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도널드 트럼프**가 여성비하 발언으로 거센 역풍에 휩싸였다.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2015서울지역자주통일선봉대 주최로 열린 '광복 70돌맞이 일본재무장규탄 한일군사동맹 반대를 위한 행동전' 참가자들이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치

▲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롯데그룹 분쟁의 후폭풍으로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벌 총수**의 증인·참고인 채택 요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 새누리당이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 의결권 행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재벌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명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해 공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 또한 공시토록 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중 10% 이상을 **청년 후보**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20%, 기초의원 후보 가운데 30% 이상을 청년 후보로 채우는 '1·2·3 공천할당제' 도입을 요구했다.

산업

▲ 

삼성전자의 삼성페이와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삼성페이는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수가 적은 상황에다 간편결제 시장의 초기 반응이 시원이 않아 연착륙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IoT는 미국과 중국 업체 사이에 끼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올해 1~7월 누계 **수입차** 신규등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에서 '독일 브랜드의 소형 디젤' 모델이 대세라는 공식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 한국지엠은 **쉐보레 임팔라**의 사전계약 물량이 매진되면서 수입물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차량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 생산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 넷마블게임즈, 게임빌, 컴투스, 웹젠 등 국내 게임업체들의 미국, 유럽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이 팽창하며 더 이상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롯데 후폭풍… 재벌들 국감 증인 줄소환?

재벌개혁 목소리 높아져 증인요청 줄이을 듯
'땅콩회항' 조현아 '메르스' 이재용 등도 거론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후폭풍으로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벌 총수의 증인·참고인 채택 요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는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 이상으로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줬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롯데는 지배구조 문제의 민낯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여당도 비판 여론을 고려하면 증인 채택을 반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령의 신격호 총괄회장은 어렵더라도 그 외 신동빈 회장 등은 소환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에서는 롯데 외에도 재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탈법적인 내부거래, 불투명한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이런 사안과 관련됐던 재벌 총수 일가들이 증인·참고인 대상으로 대거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위도 롯데 사태를 계기로 대형 유통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해, 독과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경남기업 주요 임직원들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려 나오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국토교통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수감 특혜 의혹을 추궁할지가 관심사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의 구치소 특혜 청탁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로커를 구속했고, 조 전 부사장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인하대 병원 의료진을 구치소로 불러 치료받은 일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이 부회장과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실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은 결국 돈을 갖고있는 재벌과 대기업"이라며 "국가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돈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국회밖에 없고, 국감은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메르스 특위 당시 한차례 증인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윤정원 기자 garden@metroseoul.co.kr

재벌 총수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추진

이언주 '롯데 겨냥'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명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 마련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 또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 대기업들의 경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해서만 공시토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에 재벌 대기업 내부적으로 자체규범을 만들어 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개정안에는 재벌 대기업의 공시사항 내용을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등 일반현황 △임원 현황 △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계열사간 출자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그 밖에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현재 공시의무가 없었던 총수일가가 보유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與, 오늘 국민연금 보고 청취

'롯데사태' 주주권 행사 논의

새누리당은 롯데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 의결권 행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법 개정을 할 수도 있다"며 "(국민연금은 그동안) 투자 차원에서만 개입하고 그 이상은 안 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도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는 거냐는 질문에 "검토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만나 롯데그룹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그게 문제다.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해외출자규제 외국법인 계열사로 확대 추진

신학용, 또 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 해외법인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먼저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범주에 외국에 소재한 계열사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는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장악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드러낸 바 있다.

개정안은 또 그룹 총수가 가진 해외계열사의 주식 현황,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롯데 사태로 불거진 순환출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당정회의에서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거나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문제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 그룹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손보기로 했다. 국내법으로는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정원 기자

초강력 태풍 사우델로르, 대만·중국 강타

대만 12명 사망 피해 낸뒤
중국 남동부 상륙 '초비상'
푸젠성 주민 16만명 대피


초강력태풍 사우델로르가 강타한 타이페이 시내 모습. /연합뉴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인 사우델로르(Soudelor)가 대만에 큰 피해를 낸 뒤 중국까지 강타했다.

9일 중국 CCTV에 따르면 사우델로르는 지난 8일밤 푸젠성에 상륙했다. 푸저우와 취안저우는 강풍과 폭우로 인해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다. 샤먼을 통과하는 약 100편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 시내와 지방을 잇는 고속도로에는 쓰러진 나무들이 즐비하다.

푸저우는 많은 도로가 물에 잠겨 교통이 막혔다. 많은 집들이 몇 시간 동안 식수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푸젠성 해안가 도시들에서는 여러 채의 집들이 붕괴되고 전력망이 파괴됐다. 약 15만8000명의 주민들이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현재 푸젠성보다 내륙에 있는 장시성도 태풍 경보가 발효됐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보다는 피해가 덜 할 전망이다. 사우델로르는 9일 오전 5시 열대 태풍으로 약화됐다.

대만은 사우델로르의 강력한 위력에 직격탄을 맞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만은 이날 오전 7시 현재 12명 사망, 5명 실종, 18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만 북동부 이란현에서는 바닷가에서 놀던 쌍둥이 딸 모녀가 파도에 휩쓸려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또 고속도로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치우던 소방관이 차에 치어 숨지기도 했다.

전날 대만 전역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전력이 끊기고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했다. 특히 정전사태는 대만 건국 이래 최악으로 기록됐다.

전날 하루 동안 대만 전역에서 총 37편의 국제선과 279편의 국내선 항공편이 취소됐다.

또 대만 전역에 500~800㎜의 비가 내려 155개 강과 하천이 범람 수위에 달했다. 이란현 내륙의 산악지역에는 1000㎜가 넘는 폭우가 내려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대만 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논밭 침수가 잇따르며 1억4000만 대만달러(약 52억원)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서울시, 내달부터 '오토바이 보도 주행' 단속 강화

서울시가 보도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보도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경찰에 집중적으로 신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4253건 중 6.6%인 280건이 보도 위를 주행하다 일어났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차'의 일종인 이륜자동차인 만큼 차도로 주행해야 한다. 보도를 지날 때는 내려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야 한다. 보도에서 달리다 적발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신고에 앞서 이달 말까지 계도에 나선다. 이어 오는 9월부터는 공무원 1500명을 투입해 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달리는 현장을 경찰에 신고해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오토바이의 보도 위 주행은 자동차가 보행자 사이를 곡예운전하면서 달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문화가 사라질 때까지 경찰과 협력해 오토바이 보도 주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억지주장' 피고인에 소송비용 물린다

檢, 악의적 소송비용 발생 방지

형사재판에서 억지 주장을 하며 소송비용만 발생시키는 사례를 막고자 검찰이 나섰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피고인이 재판과 무관한 감정을 신청하거나 불필요하게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내는 등 악의적으로 소송비용만 발생시키는 경우 낭비된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일당과 여비, 감정료, 번역료 등이 형사재판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이다.

그러나 실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소송비용을 물린 사례는 지금까지 많지 않았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앞으로 형사재판 구형과정에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선고때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물도록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징수하게 된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검찰이 피고인에게 물린 소송비용은 18차례 1165만원이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로또복권 제662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5	6	9	11	15	37	26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689,733,688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2,394,844
3등	5개 숫자 일치	1,260,761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한국인 27%만 "사법 신뢰" 마약·마피아 국가와 동급

OECD, 정부 신뢰도 조사 2007년 이어 '최하위국'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마피아로 공권력이 위협받는 이탈리아와 마약국가로 악명 높은 콜롬비아와 함께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38위는 29%의 이탈리아, 40위는 26%의 콜롬비아, 41위는 19%의 칠레, 42위는 12%의 우크라이나이다.

상위권인 덴마크(83%), 노르웨이(83%), 스위스(81%)와 비교하면 차이가 컸다. 이웃 나라인 일본(65%)과 비교해도 차이가 컸다.

OECD회원국 평균은 54%로 한국은 이에도 크게 못 미쳤다. 한국은 OECD회원국 중에서 칠레를 제외하면 가장 사법 신뢰도가 낮았다.

조사대상국에는 OECD회원국 34개국 외에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라트비아,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8개국이 포함됐다. OECD회원국이 아닌 나라 중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에 그쳤다.

한국은 2007년 기준의 지난 조사에서도 사법 신뢰도가 29%에 그쳐 39위를 기록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칠레를 제외하고 OECD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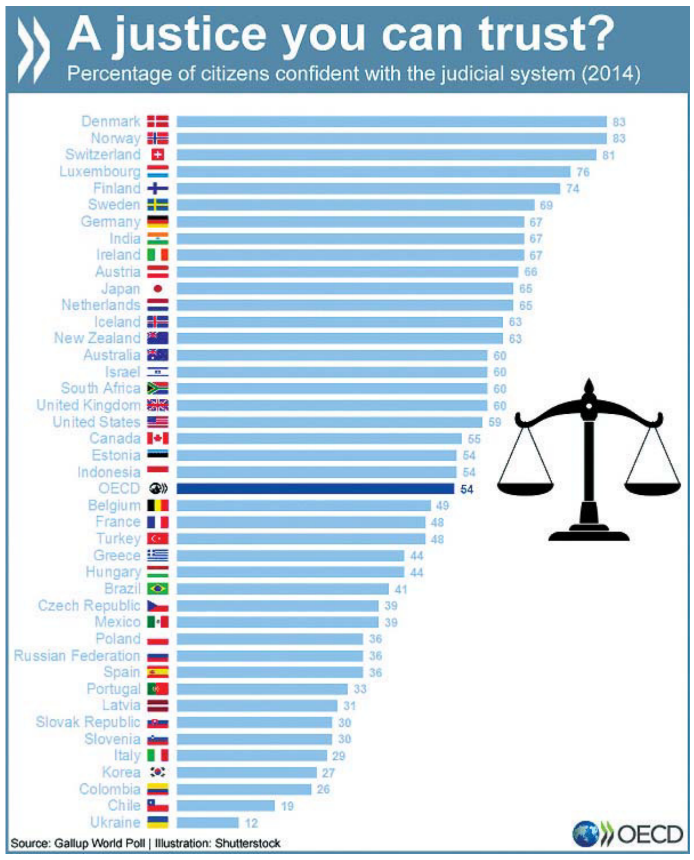
한국, 칠레, 우크라이나 3국은 2007년과 2014년 모두 39위, 41위, 42위로 최하위권 단골 국가였다. 2007년 40위는 러시아였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0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2007년과 비교하면 10% 높아진 수치이지만 OECD 평균 정부 신뢰도 41.8%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주로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로 불리는 재정위기 국가들이다. 이탈리아(31%), 포르투갈(23%), 스페인(21%), 그리스(19%) 등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다만 한국은 국가 투명성 부문에서는 1.0점 만점에 0.98점으로 조사대상국 29개국 중 가장 정보를 잘 공개하는 국가로 꼽혔다. OECD 평균은 0.58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OECD 사법 신뢰도 조사결과 /OECD 홈페이지



"국회의원 성폭행 사건 무혐의 처분 감찰해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심학봉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서 의원은 한차례 2시간 소환만으로 무혐의 처분한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공천, 청년에 10% 할당"

새정치 혁신위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9일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중 10% 이상을 청년 후보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또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20%, 기초의원 후보 가운데 30% 이상을 청년 후보로 채우는 '1·2·3 공천 할당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9일 "청년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젊은 일꾼을 과감히 수혈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차세대 리더학교를 통한 청년리더 발굴 △온라인 청년 담벼락 구축을 통한 공론장 활성화 △정당 국고보조금 3% 청년 할당 등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청년발전기본법이나 청년정치발전법 등의 입법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은 당의 미래다. 혁신위는 우리 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청년들에게 당이 뭘 해줬느냐는 질문에 직면했다"며 "새정치연합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정당, 젊은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

日언론 "미국, 박 대통령 中전승절 불참 요구"

외교부 "사실 무근"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달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날 교도통신은 워싱턴발 보도에서 미 정부 당국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에서 9월 3일 열리는 항일전쟁승리 기념행사와 관련해 오바마 미국 정권이 한국 측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면 한미 동맹에 중국이 쐐기를 박았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된다'며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참석을 보류하도록 사실상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오바마 정권은 기념행사를 국제사회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구심력 저하를 꾀하는 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한중 양국이 보조를 맞추는 사태를 경계해 주한 미대사관 등을 통해 외교 경로로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도록 못을 박았다"고 했다.

또 "미측은 또한 기념행사로 인해 중국이 역사 문제에서 한국과 대일 공동투쟁 자세를 어필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한 오바마정권의 아시아 중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교도통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에 관해)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승절 행사에 각국 정상들의 참석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을 요청받았지만 전승절 행사 참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사를 전후해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형 기자

야당·시민단체 "인권위원장, 이성호 반대"

국회가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일 가운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인선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다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인물이다.

현재 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적십자회비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점, 부장판사 재직 시 10여 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등을 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도 이 후보자가 과거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자격이 없다며 내정 철회를 요청 중이다.

참여연대와 무지개행동 등 19개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3년 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정원 기자



우포늪·무등산에서 '멸종위기' 팔색조 발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우포늪 습지보호지역과 무등산에서 팔색조의 번식 현장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우포늪에서는 6월 말께 5개의 알이 있는 팔색조 둥지를 발견했다. 무등산일대에서도 6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팔색조의 번식 현장을 포착했다. 팔색조는 8가지 아름다운 색을 띠는 우리나라의 여름철새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다. /환경부 제공

가해·피해학생 같은 학교 배정

학교폭력법 효력에 의문 교육·법조계 "법률 바꿔야"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타 초등학교로 전학간 A군. A군은 올해 중학교로 진학했는데, 가해 학생 B군과 같은 학교로 배정됐다.

A군의 학부모는 지난해 교육청에 방문해 본인 아들과 B군이 추후 같은 중학교로 배정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교육청 측은 구두로 A씨 부모의 의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현재 A군은 학교에서 B군과 원치 않게 줄곧 마주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한다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 조치가 있었을 경우'로 국한돼 있어 법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해 학생이 강제전학 조치만 안된다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해 악연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9일 교육계와 법조계에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4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조치는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 조치'가 있었을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추후 상급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와 법조계의 반응이다.

노태부(제이엔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결정이 있어야지만 상급학교 진학 시 다른 학교로 서로 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 조항이 전학조치를 전제로 효력이 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 변호사는 "다른 학교 배정이 가능한 경우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군의 학부모는 가해 학생 학부모와 민사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 현재 A군의 학부모는 교육청 초등장학과장을 직무태만과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국내 대학교 비전임비율, 한예종 '최고'

'인분교수' 사건 재발 우려 신분 보장·비율 축소 해야

국내 4년제 232개 대학중 비전임교원비율(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비전임교원 포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로 나타났다. 한예종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예술종합대학으로 특별법을 적용 받으며 2015년 평균 등록금 474만41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6월 교육부 대학공시센터 대학알리미 '2015 교원 담당비율'에 따르면 한예종은 전체 강의의 75.6%가 비전임교원을 이용해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전임교원은 전임강사이상이 아닌 시간강사나 겸임·초빙교원을 말한다.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시간강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7월 발생한 인분교수 사건처럼 비전임교원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경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예종에 이어 비전임교원비율이 높은 10개 대학은 수원가톨릭대학교(71.4%)·칼빈대학교(68.8%)·대전가톨릭대학교(66.7%)·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64.8%)·대구예술대학교(62.4%)·한국전통문화대학교(61.5%)·대전신학대학교(58.3%)·침례신학대학교(58%) 등으로 주로 종교계·예체능계 대학들이 차지했다.

이는 전체 대학 비전임교원비율 평균인 37%를 훨씬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감리교신학대학교(56.6%)·추계예술대학교(56.6%)·경인교육대학교(55.2%)·그리스도대학교(55%)·서울교육대학교(54.8%)·신한대학교(53.6%)·대신대학교(52.8%)·숙명여자대학교(52.2%) 등도 비전임교원비율이 50%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강사 강의료'를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시간강사 강의료는 5만~7만원 사이로 시간당 7만원을 적용받는 시간강사의 비율이 67.1%를 차지했다.

수원가톨릭대(5만원)·칼빈대(4만8000원)·대전가톨릭대(5만원)·중앙대 안성캠퍼스(5만원)·대구예술대(3만8000원)·한국전통문화대(8만원)·대전신학대(4만원)·침례신학대(3만6000원) 등도 시간강사의 처우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전임교원비율이 높은 대학은 한려대학교(100%)·경동대 제2캠퍼스(97.3%)·광주과학기술원(93.2%)·예수대학교(85.4%)·신경대학교(92.8%)·서남대학교(89.6%)·인제대학교 제2캠퍼스(88.2%)·가톨릭대학교 제2캠퍼스(86.4%)로 나타나 비수도권의 대학들이 전임교원비율이 높았다.

김동애 위원장은 "대학에서 비전임교원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학강의의 질이나, 교수의 교육권, 학생들의 수업권리가 하락될 수밖에 없다"며 "엄밀하게 말하면 비전임교원(시간강사)은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이 신분을 보장해주려는 노력과 비전임교원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학 시간강사료의 경우 최근 3년동안 꾸준히 증가했지만 사립대학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학이 교수에게 줄 급여가 없다면 교원보수총액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현명 기자 hmbok@



'외국계 온라인중개사이트' 소비자피해 속출



익스피디아 등 국내 무등록 7개 해외여행사이트 '주의'

'익스피디아' 등 현재 국내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무점포 해외숙박·렌트·항공 영업을 하는 7개 중개사이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중개사이트는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해외약관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취소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소비자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외국계 온라인 여행 중개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숙소 예약을 했다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국내 환불규정과 다른 해외약관을 적용해 피해를 본 사례가 접수됐다. 이처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시 숙소를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약관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는 등 피해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사업자등록과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익스피디아등 7개 외국계업체는 국내 약관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국내규정을 따르지 않고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국내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계 온라인 여행 중개사이트로 인해 환불, 일정변경 등을 거부당하는 관련 소비자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국내 여행사와 중개사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으면 ①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전액) 환급, ②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③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또 2014년 공정위는 여행사가 임의로 정한 '환불 특약'이 있을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온라인 예약의 설명 방식에 대해 환불 관련 특약 조항의 고지·설명을 소비자에게 확인받도록 시정조치 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계중개사이트'에 대한 법적용은 미비한 상태다. 또 해당업체들은 국내 약관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을 지키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계속 늘고 있다.

익스피디아의 경우 TV광고, 파워블로거 간담회, 경품행사 등 국내 판촉·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영업하고 있지만 국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익스피디아는 위의 피해사례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내 등록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사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유선과 이메일을 통한 취소만 가능해 피해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익스피디아 등 7개 해외여행중개업체의 환불 관련 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요청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외국계 온라인 여행중개사이트'의 차단 필요여부를 검토요청 할 예정이다.

◇분쟁·피해신고 접수: 서울YMCA 시민중계실(02-733-3181, http://consumer.ymca.or.kr). /최치선 기자 chisunti@



8월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광복 70주년 기념 무료 혜택

-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4일)
- 4대 고궁,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 무료 개방(8월 14일-16일)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참조 (http://summer.visitkorea.or.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삼성화재, 엘리엇 자금 이탈 공포 '불똥'

주주증명서 반환… 1200억원 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
"계열사 지분 모두 처분 의도" 관측에 증권가 '촉각'

보험업종이 손해율 개선 등에 완만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삼성화재 주가가 급락했다. 최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보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경험한데다 투자금 이탈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시름하고 있다.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화재는 전일 대비 2.69%(7000원) 내린 25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24만6500원까지 떨어져 5개월여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

삼성화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청구하기 전날인 6일 기관 매도가 거세지며 전일 대비 2.98%(8000원) 떨어진 26만500원에 장을 마치기도 했다.

양일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8억5100만원, 174억5600만원어치의 삼성화재 주식을 내던졌다.

◆삼성물산-제일모직 주매청구 이후 '뚝뚝'

6일 엘리엇은 삼성물산 보유 지분 7.12% 중 4.05%에 달하는 약 773만주에 대해 주식매수권을 청구했다. 액수로는 4425억원 수준이다. 일성신약은 약 2117억원 규모의 보유 지분 전량 370만주를 청구했다.

이날 삼성물산은 전날보다 3.50%(2000원) 내린 5만72000원에 거래를 마쳐 삼성물산이 정한 행사가격인 5만7234원을 밑돌았다. 이어 다음날엔 낙폭을 더 키워 전일 대비 5.25%(2900원) 빠진 5만2300원으로 장을 마감, 반년 만에 최저점을 기록했다. 제일모직도 6일 4.17%(7000원) 떨어진 16만10000원을 기록한데 이어 7일 4.66%(7500원) 내린 15만3500원으로 거래를 마쳐 주식매수청구가인 15만6493원을 하회했다.

양일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선 외국인이 613억1100만원, 기관이 666억800만원어치를 내다팔았다.

◆거센 후폭풍·끝난 게 끝난 게 아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청구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는 합병취소 요건인 1조5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엘리엇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해온 만큼 삼성물산이 제시한 행사가격인 5만7234원에 대해 법원에 '지나치게 낮다'며 가격 재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엘리엇이 삼성물산 보유 지분에 대해 주식매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추후 엘리엇이 보유 중인 삼성그룹 관련주 전량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24일 예탁결제원에 삼성물산(7.12%) 주식과 함께 삼성SDI(1%), 삼성화재(1%) 주식에 대한 실질주주증명서를 반환했다.

엘리엇이 삼성SDI와 삼성화재에 보유한 주식은 각각 68만7650주, 47만3050주 규모다. 이를 전량 처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7일 종가기준 삼성SDI에선 570억원, 삼성화재에선 1182억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

자본시장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주권 행사기간 만료 전 실질주주증명서를 반환하면 주식 처분 제한이 풀린다.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엘리엇이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어 증권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주간 경제지표 일정

일정	국가	기준월	지표	예상치	이전치
10일	중국	7월	신규대출(십억위안)	725	1279.1
	중국	7월	M2 증가율(YoY)	11.7	11.8
	일본	7월	소비자기대지수		41.7
11일	유로존	8월	ZEW 서베이		42.7
	일본	7월	공작기계주문(YoY)		6.6
12일	한국	7월	실업률		3.9
	한국	6월	M2 증가율(MoM)		1
	미국	7월	재정수지(십억달러)	−1.175	51.8
	유로존	6월	산업생산(YoY)		1.6
	중국	7월	광공업생산(YoY)	6.6	6.8
	중국	7월	소매판매(YoY)	10.6	10.6
	중국	7월	누적고정자산투자(YoY)	11.5	11.4
	일본	6월	광공업생산(YoY)		2
13일	한국	8월	금융통화위원회	1.5	1.5
	미국	7월	소매판매(MoM)	0.4	−0.3
14일	미국	7월	광공업생산(MoM)	0.3	0.2
	미국	7월	설비가동률	78	77.8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94.1	93.1
	유로존	2Q	GDP 성장률(QoQ)	0.5	0.4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제공

제약·바이오株, 연이은 하락 딛고 부활하나

| 마켓인사이트 |

상승세 타며 국내증시 이끌어
"향후 전망 나쁘지 않을 것"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부활의 시동을 걸고 있다.

이들 주가가 연이은 하락세를 딛고 다시 상승 시동을 걸며 최근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약·바이오주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제약업종지수는 지난달 9.33% 추락해 올 들어 처음으로 월간 등락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17개 주요 제약·바이오주의 73.50%인 86개 종목이 7월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주가가 상승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의약품업종은 전일대비 2.93% 상승했고, 코스닥시장에서 제약업종은 3.26% 올랐다. 이날 파미셀(7.53%), 대원제약(6.14%), 국제약품(5.79%), 삼성제약(5.05%) 등 제약주 대부분이 5% 이상 올랐다.

지난 5일에도 제약·바이오주가 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코스피지수가 0.09% 오르는 동안 유가증권시장 의약품지수는 2.16% 상승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제약지수가 3.40% 올라 코스닥지수 상승률(1.54%)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상승은 제약·바이오주의 업황과 향후 전망이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형 제약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기술 이전이 가시화하면서 업종 내 차별화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 바이오 기업들의 기업공개(IPO)도 주가에 긍정적이다.

실제로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 명함을 내민 바이오 기업들은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 이들 종목의 시초가는 모두 공모가 대비 100% 상승했다.

바이오 부문의 IPO 수익률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세계 IPO 수익률 1위 분야는 헬스케어로, 수익률 42.8%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노경철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새로 상장되는 바이오기업들은 상당한 기술력과 성장성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바이오기업의 IPO는 계속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며 "상장 이전에 미리 투자하면 수익률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실적에 기반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 들어 제약주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하태기 SK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제약주는 실적에 기반해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신약 제약주는 확실하게 사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민지 기자 minji@

'합병 찬성' 국민연금-KCC, 손실 후폭풍

삼성물산 합병안에 손든 국민연금과 KCC가 막대한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율은 각각 11.88%(1856만1301주)와 5.04%(697만7871주)에 달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합병 주주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 16일 각각 6만9300원과 18만4000원이었다. 그렇지만 합병안이 통과된 이후 주가는 7일 5만2300원과 15만3500원으로 불과 3주 사이에 각각 24.53%, 20.87% 하락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서 3155억원, 제일모직에서 2826억원 등 총 5981여 억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그룹 계열사 12곳의 지분 5% 이상을 보유 중으로, 합병안 통과 이후 8000억원 가량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의결권을 행사하면서도 속 시원한 이유를 내놓지 않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KCC도 마찬가지로 난감한 상황이다.

KCC는 지난 7일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5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8%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KCC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백기사'를 자처하며 지난 6월10일 종가 7만5000원에 삼성물산 자사주 5.76%를 사들였다. 매입가격은 6743억원으로 KCC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두 배가 많았다.

이에 따라 KCC는 자사주 취득 이후 현재까지 삼성물산에서 2113억원, 제일모직에서 3437억원 등 총 5550억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 기간 KCC주가도 합병안이 통과된 지난달 17일부터 현재까지 6.06% 빠졌고 시가총액은 385억원이 줄어들었다.

/김보배 기자

중소형주 강세, 국내 주식펀드 플러스 수익

국내 주식형펀드가 중소형주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9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7일 공시된 기준가격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펀드의 가치는 한 주간 0.25% 상승했다.

중소형 주식펀드가 중소형주 강세에 따라 3.99%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배당 주식펀드와 일반펀드 수익률도 각각 1.19%와 1.08%를 기록했다. 반면 대형주의 부진으로 K200인덱스펀드 수익률은 −1.36%로 손실을 보였다.

국내 채권펀드는 채권금리가 중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한 주간 0.03% 가치가 하락했다.

초단기채권펀드가 0.03% 수익률로 유일하게 플러스 성과를 올렸다. 중기채권펀드와 AAA이상 등급에 투자하는 우량채권펀드는 각각 0.08%, 0.05% 하락했고, 일반채권펀드도 −0.02%의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 주간 해외 주식펀드는 유럽증시의 강세 등 영향으로 0.58% 상승했다.

특히 유럽주식펀드가 2.73%의 수익률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인도주식펀드(2.68%)도 수익률이 우수했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지난주에 이어 약세를 지속했다.

/김민지 기자

호실적 거둔 지방은행, 몸집 키운다

비대면 채널 활성화 맞춘 사업다각화·인수합병 전략
해외진출·M&A 등 통해 지역기반 한계 극복 나서

지방 금융지주들이 올 상반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금융지주는 비대면 채널 활성화에 발맞춰 사업을 다각화하고 내실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BNK·DGB·JB금융지주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영업점을 재편하는 한편 해외 진출과 M&A 등을 통해 지역 기반 한계 극복에 나섰다.

◆ 상반기 호실적…"지역대표 금융 자리매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곳은 부산과 경남지역에 기반을 둔 BNK금융이다.

앞서 BNK금융은 지난달 28일 GS자산운용을 8번째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로써 BNK금융은 자회사 8개, 손자회사 3개를 거느린 중형 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BNK금융은 회사 인수 과정에서 자본금을 확충한 만큼 자본력을 바탕으로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영업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비은행 계열사의 영업망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실적 또한 탄탄하다.

올 상반기 BNK금융은 319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185억원, 59% 증가한 규모다.

여기에는 부산은행의 이익 성장 지속과 NIM 개선 등을 통한 경남은행의 수익성 향상, 비은행 계열사의 이익 성장 등이 작용했다고 BNK금융은 설명했다.

계열사인 부산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익은 전년동기 대비 5.95% 오른 2041억7100만원이다. 같은기간 경남은행은 1418억7400만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 인수합병-계열사 시너지 통한 내실화 '집중'

지난 2013년 첫발을 내디딘 JB금융지주는 경기도 등 수도권과 해외로 영역을 뻗어 나가고 있다. 올초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경기도 진출을 허용함에 따라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지난 4월 JB금융 산하 전북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경기도 수원시에 지점을 개설했다.

이와함께 자회사인 JB우리캐피탈은 베트남 하노이에 대표사무소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 LIG투자증권 인수를 검토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실적 또한 확대됐다.

올 2분기 JB금융의 순익은 전년동기 대비 208.7% 증가한 54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누적 순익은 76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광주은행 인수 효과가 본격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해 10월 자회사로 편입된 광주은행은 전분기 대비 1425.3% 늘어난 2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JB우리캐피탈 또한 전년동기 대비 1304.8% 증가한 185억원으로 수익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

자회사인 전북은행은 6.1% 증가한 19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JB자산운용은 흑자 전환했다.

DGB금융은 올 상반기 그룹 연결기준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59.0% 증가한 2004억원을 달성했다.

주요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비이자이익 개선과 DGB생명의 인수효과 등으로 실적 개선이 두드러진 것이라고 DGB금융은 분석했다.

대구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7.6% 증가한 18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은행 자회사인 DGB생명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8억원이며, DGB캐피탈은 41억원이다.

한편 DGB금융은 대구은행의 비대면채널을 강화하고 대구지역 시장점유율 47%의 성공신화를 동남권에 재현하는 동시에 경기도 제1호 지점 반월공단지점 개점을 계기로 수도권 영업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했다.

이밖에 스마트한 경영관리 체제를 도입해 DGB생명을 2020년까지 톱10 보험사에 진입시키고, DGB캐피탈은 자산규모 3조원 이상 중형사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KB국민카드 "동호회비 500만원 쏜다" KB국민카드는 9일 생활체육 동호회에 최대 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색 이벤트를 펼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생활체육 동호회를 등록하면 된다. 운영비는 동호회 구성원들의 KB국민카드(기업·선불카드 제외) 이용금액을 기반으로 지원된다. /KB국민카드 제공

5년 지난 대출채권, 변제의무 없어

금감원 "불법채권추심 척결"

지난 2002년 한 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을 신용대출 받은 A씨는 3년 후 실직 등 경제적 이유로 대출금이 연체됐다. 이후 A씨는 군입대와 이사 등으로 은행이 발송한 채무상환독촉장과 채권 양도통지서를 받지 못해 채무사실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올 3월 A씨는 자신의 급여에 법원의 압류명령이 내려진 것을 발견했다. 채권자는 A씨가 한번도 이용한 적 없는 B대부업체였다. 확인결과 B대부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했으며 법원에 해당 채권의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B대부에 원금 200만원과 연체이자 250만원을 갚았다. 문제는 A씨의 채무가 소멸시효된 것이라는 점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매각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 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즉 채무자인 금융소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는 셈이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후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부활한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회사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넘겨 받은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들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 하반기 금융회사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1000만원 이하 소액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때 추심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무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우편, 문자 등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엔 2주 이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대부업체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한다. /백아란 기자

금융거래 전 '윈도10' 지원여부 확인해야

금융위, 호환성 테스트·대응현황 점검 예정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거래를 하기 전 각 금융회사의 '윈도10'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은행 2곳과 증권사 15곳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새 운영체제인 '윈도10'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미지원 은행은 한국씨티은행과 경남은행 두곳이다. 이들 은행은 각각 오는 8월 말과 9월 30일 경 '윈도10'을 지원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사는 ▲신영증권▲대우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부국증권▲BNK투자증권▲펀드온라인코리아 ▲한양증권 ▲리딩투자증권 ▲현대선물▲유화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NH선물 ▲NH농협선물이다.

해당 증권·선물사는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윈도1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IT환경 변화에 따른 사전 호환성 테스트를 이행하고 대응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별로 윈도10 지원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뉴시스

재건축·재개발, 올 청약 경쟁률 톱3 싹쓸이

부산 '광안더샵' 379대 1 최고
정부대책 힘입어 전국서 후끈

예정단지 매매가도 고공행진
안산 등서 1만5000가구 대기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등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올해 재건축·재개발 분양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이들 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약경쟁률 상위 1~3위는 모두 부산과 대구에서 분양된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나왔다.

지난 4월 포스코건설이 부산 수영구 광안맨션을 재건축하는 '광안더샵'의 경우 91가구 모집에 3만4496명이 몰려 379대1의 평균 경쟁률로 기록했다. 이어 GS건설이 지난 6월 공급한 해운대구 우동6구역 재개발 사업지인 '해운대자이2차는 3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위는 대구 동구 신천동 재건축 단지인 ' 동대구 반도유보라(273대 1)였다.

청약경쟁률 외에도 예정단지 매매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대구 북구 복현동 재건축 예정 단지인 '시영 1차'아파트의 전용면적 52㎡와 40㎡ 상반기 매매가는 올 상반기에만 각각 54.9%와 52.9%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재건축 예정 단지인 '시영 3차'의 전용면적 40㎡는 28.3% 상승했다. 이는 대구지역 상승률보다 최고 6배, 전국 평균보다는 20배가량 높은 수치다.

하반기에도 전국에 공급되는 재건축·재개발 분양은 총 1만5781가구(일반분양 7344가구)에 달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안산에서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대표적인 단지는 대우건설이 7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다.

안산 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7층 7개동, 전용면적 84~115㎡ 990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540가구다. 도보로 약 500m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단지로 꼽힌다.

롯데건설은 오는 11월 조지동 군자주공5단지를 재건축한 '초지동 롯데캐슬'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체 469가구 중 일반분양분은 75가구다. 안양에서는 한양이 건설하는 안양2동 안양 청원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대기 중이다. 전용면적 59~114㎡, 419가구 중 일반분양은 188가구다.

춘천에서는 일성건설이 오는 10월 후평2단지 재건축 단지를 분양한다. 총 1123가구 중 일반분양분은 473가구다. 12월에는 삼호가 '춘천 약사 e편한세상'(일반분양분 562가구)을 공급한다.

대구에서는 현대건설이 이달 중 '힐스테이트 황금동'(일반분양분 281가구)을 분양한다. 10월에는 대림산업의 '대구 대신e편한세상'(일반분양분 328가구)이, 12월에는 화성산업의 '남산역화성파크드림'(일반분양분 358가구)과 효성의 '대구범어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일반 분양 46가구)가 각각 대기중이다.

분양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이미 생활·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에 위치해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새 집으로 갈아타려는 잠재수요도 많다"며 "상반기 서울 뿐 아니라 지방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인기를 발판으로 하반기에도 많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하반기 주요 재건축·재개발 분양 예정 단지

지역	위치	단지명	가구수	전용면적	분양시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990	84~115	8월
	안양시 만안구	한양수자인(안양청원아파트)	419	59~114	하반기
강원	춘천시 후평동	일성트루웰(후평2단지)	1123	미정	10월
경북	구미시 공단동	e편한세상 구미 파크벨리	627	59~84	8월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동	782	59~111	8월
	중구 남산동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416	59~84	12월
경남	통영시 북신동	한진해모로(북신지구)	1023	미정	하반기
	창원시 의창구	한화꿈에그린(대원2구역)	1630	59~108	10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쌍용예가(재개발)	1638	미정	12월

7월 주택거래량 사상 최고

11만675건 전달比 43.2%↑

전세난에 시달리던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함에 따라 7월 주택거래량이 지난 2006년 이후 최다 기록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11만67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43.2%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3만3065건 지방 4만422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72.7%, 21.1% 증가했다.

서울은 1만6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3%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5만2832건) ▲연립·다세대(1만2697건) ▲단독·다가구(1만1757건)가 각각 40.3%, 56.7%, 41.7%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72만14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0% 늘어났다. 누적 거래량 역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상승세, 수도권 일반단지는 강보합세를 보였다.

서울 강남 개포 주공1차 49.56㎡(5층)는 6월 8억9000만원에서 7월에는 9억원으로 올랐고, 강동 고덕 주공2차 48.60㎡(4층)는 5억6000만원(1층)으로 6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양일산서 큰마을대림현대 84.73㎡(18층)는 6월 2억5500만원에서 7월에는 2억6250만원(16층)으로 올랐다.

/김형석 기자



경기부진에 폐업 속출 메르스 사태와 경기 부진으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영세자영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대역 근처의 폐업된 가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통계청은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39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7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청약가입자 38.4% "투자 위해 든다"

닥터아파트 429명 설문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로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꼽혔다. 이어 올 하반기 청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한 투자용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가 지난달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한 회원 4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삼성물산은 이번 조사에서 39.7%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GS건설의 '자이'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과 포스코건설의 '더샵'이 뒤를 이었다.

하반기 청약 이유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전매로 되팔려는 투자용이 38.4%로 가장 많았다. 특히 1년 미만 보유하고 전매하려는 투자수요가 18.5%에 달했다. 갈아타려는 교체수요는 34.6%였다. 내집마련용이라는 응답자는 22.4%를 차지했다.

/김형석 기자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 사흘간 2만5000명 발길

대우건설은 지난 7일 개관한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에 2만5000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9일 밝혔다.

안산 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지하2층, 지상 29층~37층, 7개동 총 990가구 규모다. 이중 54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택형 별 일반분양분은 ▲84A㎡타입 59가구 ▲84B㎡타입 215가구 ▲84C㎡타입 17가구 ▲99A㎡타입 154가구 ▲99B㎡타입 43가구 ▲115㎡타입 52가구 등이다.

3.3㎡당 평균분양가는 1300만원대다. 중도금 이자후불제,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가 적용된다.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 지정계약은 25일~27일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7일 개관한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에 사흘 동안 2만5000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주말 견본주택 방문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와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실수요층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차별화된 상품경쟁력과 중앙역 역세권 입지, 편리한 생활환경 등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안산시 상록구 이동 721번지(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는 2018년 4월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삼성전자 야심작 '삼성페이·IoT' 경고음

간편결제, 소비자 반응 냉랭
탑재 스마트폰 판매량 관건
IoT, 美·中에 샌드위치 우려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페이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이하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와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삼성페이는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수가 적은 상황에다 간편결제 시장의 초기 반응이 시원치 않아 연착륙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IoT는 미국과 중국 업체 사이에 끼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상용화를 앞두고 베타 테스트(공식 제품을 출시하기 전 최종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하고 있다. 삼성페이는 이달 하순부터 공식 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페이는 애플페이, 안드로이드페이 등과 글로벌 간편결제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페이의 시장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간편결제 선호도가 크지 않고,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기기 수량이 많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먼저 시장에 출시한 애플페이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PYMTS에 따르면 아이폰6 사용자 가운데 애플페이를 이용한 사용자는 지난 3월 15.1%에서 6월에는 13.1%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보안을 우려한 사용자는 15%에서 19%로 늘었다. 사용법을 모른다는 응답비율은 34%에 달했다.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간편결제에 대해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삼성페이는 애플페이에 비해 범용성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애플페이는 근거리이동통신(NFC)을 지원하는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삼성페이는 기존 마그네틱 결제 단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 모듈이 내장되지 않은 일반 스마트폰에서는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시장에서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S6·S6 엣지 뿐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13일 미국 뉴욕에서 공개하는 갤럭시 노트5와 엣지6 플러스에도 삼성페이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 삼성페이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갤럭시 S6·S6 엣지의 판매가 당초 예상을 밑돌고 있는 가운데 노트5와 엣지6 플러스마저 주춤할 경우 삼성페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의 가정용 IoT 사업도 밝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KT경제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와 마찬가지로 애플, 구글이 스마트홈 플랫폼을 지배하고 중국 기업들이 하드웨어 생산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개발업체 스마트싱스(Smart Things)를 인수한 삼성전자의 사업성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플랫폼 사업에서 성공한 적 없는 삼성전자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업계에서 의심스러워한다는 이유를 달았다.

삼성전자의 운영체제(OS) '바다'의 실패, 콘텐츠 사업의 포기 등을 언급한 보고서는 "플랫폼을 완성하려면 고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이나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보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삼성-애플-LG,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격돌

삼성전자·애플·LG전자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올 하반기 신제품을 출시하고 시장 경쟁에 나선다.

여기에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프리미엄 경쟁을 예고한 만큼 제조사 마다 다양한 혁신 기능을 갖춘 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휴대폰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5'를 시작으로 애플은 아이폰6S, LG전자는 슈퍼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를 준비중이다.

우선 삼성전자는 오는 13일 미국 뉴욕에서 모바일 신제품 공개행사인 언팩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S6 엣지 플러스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애플의 신제품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갤럭시노트5는 대부분 디자인과 사양이 드러났다. 화면은 갤럭시노트4의 5.7인치보다 더 넓어질 예정이다. 4GB램, 32GB 저장용량, 후면1600만, 전면 5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장착될 전망이다. 또 S펜은 스프링을 적용해 손가락으로 펜 상단을 콕 눌러주기만 하면 뺄 수 있도록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SAMSUNG 갤노트5·S6엣지+

13일 출시 시장점유 선공
화면 키우고 편의성 높여

아이폰6S

포스터치 기능 추가 예정
카메라 화질 업그레이드

LG G4 Pro(가제)

스냅드래곤 820 탑재
연말까지 상용화 관건

아직까지 혁신적인 기술로 내세울 만한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언팩 행사장에서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 아이폰6S도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 애플은 올해도 9월에 출시 행사를 진행한다. 아이폰6S는 외신과 해외 부품업계 등을 통해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등 부품 실물 이미지가 이미 공개됐다. 아이폰6S는 기존 아이폰6와 디자인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애플워치를 통해 공개한 '포스터치'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포스터치는 터치 반응 세기로 다양한 입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여기에 카메라 화질도 고화질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LG전자는 '슈퍼 프리미엄 폰'으로 불리는 차기 전략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LG G4 Pro(가제)'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5.8인치 디스플레이와 스냅드래곤 820를 탑재할 예정이다. 다만 문제는 스냅드래곤 820이 올해 말까지 상용화 될수 있을지 여부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면서 혁신 기능을 갖춘 제품이 올 하반기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능이 없다면 중국 업체의 추격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모델이 60일 이용권으로 멜론의 고품질 음원을 즐길 수 있는 무선 360 오디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무선 360 오디오' 사면 멜론 '공짜'

삼성전자
내달까지 60일 이용권 증정

삼성전자가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무선 360 오디오'를 구매한 고객에게 국내 대표 음악 서비스 '멜론' 이용권을 증정한다.

무선 360 오디오를 구매한 고객은 모바일로 무제한 듣기·다운로드와 PC로 무제한 듣기와 100곡 다운로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프리클럽 이용권'으로 해당 멜론 서비스를 60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공식웹사이트(http://www.samsung.com/sec)에서 제품의 고유번호 (Serial Number)를 입력하고 인증을 받으면 휴대폰 문자로 '멜론' 이용권 수령이 가능하다.

지난 4월 국내에 처음 선보인 무선 360 오디오는 내장 배터리로 휴대가 간편한 R6 모델의 판매량이 7월 휴가 시즌을 맞아 전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폰의 '멀티룸 앱'을 리모컨처럼 사용하는 무선 360 오디오는 와이파이 연결을 지원해 기존 블루투스 전용 오디오보다 안정적인 무선 연결과 고품질 음원 감상이 가능하며, 문자나 전화가 오더라도 끊김 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또 멀티룸 앱으로 다른 삼성 오디오 제품과 연결해 다채널 사운드를 즐기고 멜론 서비스도 직접 연결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링 라디에이터(Ring Radiator) 기술로 스피커의 각도, 거리와 상관없이 어느 위치에서나 같은 음질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한진 기자

LG '코드제로 핸디스틱' 누적 판매 10만대 돌파

LG전자는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핸디스틱(사진)이 국내 누적 판매량 10만대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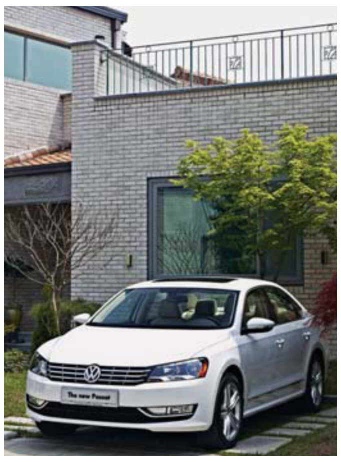
LG전자는 지난해 9월 핸디형과 스틱형 청소기를 결합한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핸디스틱을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코드제로 핸디스틱은 출시 직후부터 호평을 받으며 지난달 말 기준 누적 판매량 10만대를 넘어섰다.

코드제로 핸디스틱은 휴대폰처럼 바꿔 낄 수 있는 배터리 두 개를 적용해 사용시간이 최대 70분에 이른다. 또 LG만의 독자 기술인 '안티헤어 브러시'를 적용해 머리카락 등이 청소용 솔에 감기는 것을 방지하고, 창틀이나 손이 닿지 않는 가구 틈새 등을 청소할 때 유용한 '빌트인 브러시'도 내장했다.



LG전자는 코드제로 핸디스틱에 차별화된 편의성을 적용한 것이 판매 호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한진 기자

브랜드는 '독일' 모델은 '디젤' 압도적 우세


폭스바겐 파사트.

통계로 본 국내 수입차시장

獨브랜드·디젤 각 68% 차지 시장확대에 올 20만대 돌파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에서 '독일 브랜드의 소형 디젤' 모델이 대세라는 공식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수입차 신규등록은 14만539대로 집계됐다.

이 중 배기량 2000cc 미만 모델이 7만7358대로 점유율 55.0%를 차지했다. 2000~3000cc 차량은 4만9928대로 35.5%를 점유했다. 수입차 판매 10대 중 9대가 3000cc 이하 모델인 셈이다. 3000~4000cc는 6.5%, 4000cc 이상은 2.8%에 불과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차가 9만6304대로 68.5%를 차지했다. 영국 7.4%, 프랑스 2.8%, 스웨덴 1.7%, 이탈리아 0.3% 등 유럽 합계는 80.6%에 이른다. 일본은 1만6559대, 11.8% 점유율로 단일국가 중 선두 독일의 뒤를 이었다. 미국은 1만653대, 7.6%로 영국을 근소하게 앞섰다.

연료별로 보면 디젤 차량이 9만6348대로 68.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7만6636대보다 25.7% 증가한 수치다. 가솔린 모델은 3만8892대로 점유율 27.7%를 기록했다.

아직은 디젤과 가솔린 차량에 비할 수 없지만 친환경 수입차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나타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5053대가 팔려 3.6%를 점유했다. 지난해 3925대와 비교해 28.7% 증가한 규모다. 전기차는 246대로 0.2%에 불과하지만, 48대가 팔린 지난해에 비해 412.5% 성장했다.

최근 5년(2011~올해) 동안 1~7월 누계 수입차 신규등록은 2배 넘게 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6만523대 △2012년 7만3007대 △2013년 8만9440대 △2014년 11만2375대 △2015년 14만539대로 올라섰다. 올해 실적은 지난달까지만 누계해도 2011년과 2012년 한 해 동안의 실적(각각 10만5037대, 13만858대)을 넘어서는 규모다. 2013년에는 15만6497대, 지난해에는 19만6359대가 팔린 바 있다. 올해는 20만대를 돌파해 기록 경신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현대 '2016 그랜드 스타렉스' 오늘 판매개시 2295만원부터

현대자동차는 '2016 그랜드 스타렉스'를 10일부터 시판한다.

2016 그랜드 스타렉스(사진)의 디젤 왜건형에는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키는 2.5 VGT 디젤 엔진이 탑재됐다.

엔진성능 개선과 연료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엔진과 변속기를 제어하는 액티브 에코 시스템을 디젤 왜건형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9.5㎞/ℓ의 연비에서 3.2% 개선된 9.8㎞/ℓ의 복합연비를 달성했다.

2016 그랜드 스타렉스는 기존 운전석, 동승석 에어백 외에 1열 사이드 에어백을 디젤과 LPI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다.

또 진흙길, 웅덩이에 차량이 빠졌을 때 미끄럼 방지 및 구동력 증대를 통해 험로 탈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차동기어 잠금장치(LD)를 확대 적용했다.

옆면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16·17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됐다.

실내는 계기판과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을 개선했다. 실내 조명은 녹색에서 청색으로 변경했다.

2016 그랜드 스타렉스는 ▲무선도어 잠금장치 기능이 적용된 폴딩키 ▲전동 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 ▲씨디 플레이어(CDP)가 적용된 오디오 시스템 등 기존 고객 선호사양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다. 크루즈 컨트롤을 신규 적용해 운전편의성도 향상시켰다.

2016 그랜드 스타렉스의 가격은 디젤 모델이 ▲기본형 2475만원 ▲스마트 2540만원 ▲모던 2670만원 ▲모던 스페셜 2780만원이다. LPI 모델은 ▲스마트 2295만원이다.

/정용기 기자



쉐보레 '임팔라' 사전계약 완판… 국내생산 불 지피나

한국지엠 "좀 더 지켜볼 것" 수입물량 확대 신중 전략



쉐보레 임팔라(사진)의 사전계약 물량이 매진되면서 한국지엠이 수입물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차량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생산 가능성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9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쉐보레 임팔라는 지난달 31일 사전계약을 실시한 후 1000대 이상 계약이 완료됐다. 한국지엠 측은 "이날까지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확인은 어렵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반응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수입물량을 늘려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임팔라의 국내생산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지엠 측은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요가 계속 이어진다면 선적 물량 확대는 늘어날 것"이라며 "임팔라 국내생산에 대한 논의는 공식 출시도 시작하지 않은 현재시점에서 다루기엔 이른 부분이고 조심스럽다. 고객들의 관심에는 감사한다. 한국지엠은 임팔라 수요에 대응하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국내생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임금교섭이 최종 타결된 지난달 30일 한국지엠 노사는 3개월 정도 임팔라의 판매 추이를 보고 국내생산을 검토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쉐보레 임팔라가 국내 승용차 시장 불황에 바람을 불어넣을 차량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준대형 차급인 임팔라의 경쟁차종으로 꼽히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와 기아자동차의 K7은 올해 1~7월 판매량이 각각 4만8633대, 1만1376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보다 8.3%, 12.7% 감소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그랜저와 K7의 판매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승용차 수요 감소세를 한국지엠이 임팔라로 가져오는 것이 관건"이라며 "5년 또는 10만㎞의 보증기간과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워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된 임팔라는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지엠 공장에서 들여오고 있다. 임팔라는 외국에서 수입돼 국내서는 국산차로 판매된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르노삼성자동차의 QM3다. QM3는 현재 스페인에서 수입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사전계약 돌풍을 보면 임팔라는 첫 단추를 잘 풀었다. 하지만 임팔라 돌풍이 반짝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연비, 실용적인 부분을 개선해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생산 여부도 소비자들이 직접 임팔라를 타보고 반응이 나와야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한국지엠 '더 넥스트 스파크' 판매 시동

전국 순회 체험마케팅 돌입

한국지엠은 전국 5대 광역도시 등에서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전시와 시승행사를 포함한 고객 체험 마케팅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전날 서울 코엑스에서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 마크 코모 영업·AS·마케팅부문 부사장, 이경애 마케팅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 넥스트 스파크 1호차 전달식을 갖고 고객 체험 마케팅의 시작을 알렸다.

호샤 사장은 더 넥스트 스파크 1호차 주인공에게 주유 상품권과 가족 식사권을 전달하며 축하했다.

이후 열린 유명 밴드 딕펑스의 축하 콘서트에는 인파가 몰려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더 넥스트 스파크 일반 고객 1호차 주인공으로 선정된 이진우씨는 "순찰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다양한 차량을 경험해볼 수 있었고 쉐보레 차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며 "이번에 구매한 더 넥스트 스파크는 6살 난 아이와 같이 탈 수 있는 안전한 차라서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왼쪽), 이진우씨(가운데, 더 넥스트 스파크 1호차 주인공), 마크 코모 한국지엠 부사장이 더 넥스트 스파크 1호차 전달식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 제공

이 전무는 "이달부터 전국 영업소에서 더 넥스트 스파크를 체험하게 되면 시장 반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 체험 마케팅을 진행해 많은 고객들에게 더 넥스트 스파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인천-아스타나 신규취항식에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가운데)이 취항편 승무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 제공

아시아나, 카자흐 '아스타나' 신규 취항

아시아나항공은 카자흐스탄 행정수도인 아스타나에 신규취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천-아스타나 첫 취항 편에 앞서 아시아나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수천 아시아나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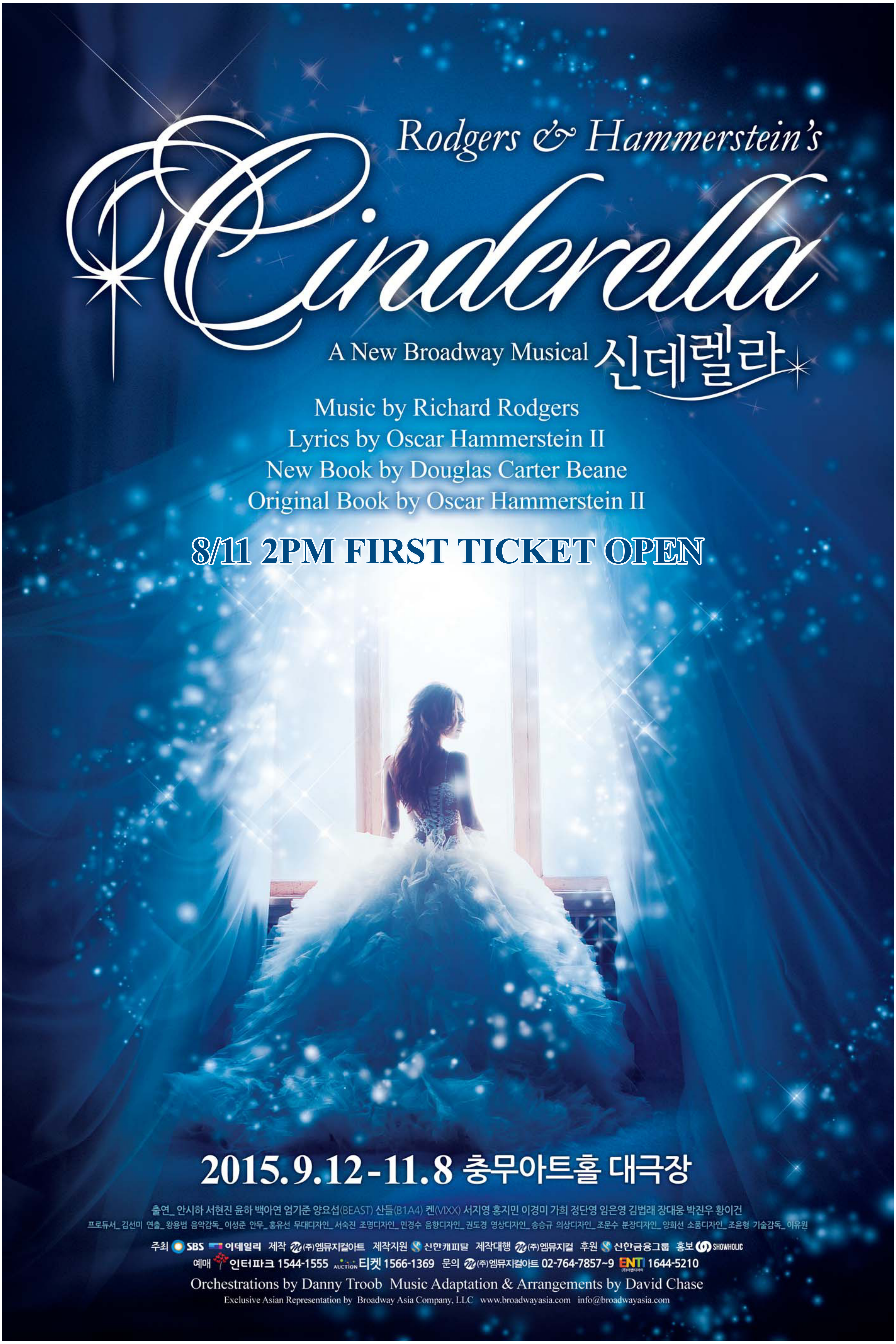
아시아나가 주1회 운항하는 인천~아스타나 노선은 오후 6시 3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후 10시 30분 아스타나공항에 도착한다.

아스타나에서는 오후 11시 50분에 출발, 다음날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아시아나는 이번 신규취항으로 한국-카자흐스탄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앙아시아를 방문하려는 고객이 이용 가능한 항공사와 스케줄 선택 폭이 넓어지는 등 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시아나는 최근 증가 중인 양국 간 비즈니스와 의료관광 수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8/11 2PM FIRST TICKET OPEN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모바일 게임 "해외로…" 미국·유럽 진출 가속

국내시장 포화… 글로벌 주목
넷마블·게임빌·컴투스·웹젠 등
하반기 주요작 해외 공략 집중



넷마블의 '마블 퓨처 파이트'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국내 게임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글로벌 진출이 이어지는 이유는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이 팽창하며 더 이상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국내 모바일게임 최강자인 넷마블게임즈다. 넷마블은 이날 현재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게임 매출 1~3위를 독식하고 있다. 넷마블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더 이상 오를 계단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넷마블은 내년 상반기까지 역할수행게임(RPG), 퍼즐, 스포츠 등 다양한 종류의 게임 31종을 내놓고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 2'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게임을 2개월째 제작 중이다.

또 상반기에 영화 '어벤저스' 캐릭터가 등장하는 '마블 퓨처파이트'를 해외에 선보인데 이어 최근 디즈니와 손잡고 '모두의 마블 디즈니'(가칭)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미국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현지 개발사인 SGN을 1억3000만달러(약 1500억원)에 인수했다.

게임빌 역시 올 하반기 화두를 글로벌 '대작'으로 정하고 총 10여 종의 신작으로 세몰이를 가속할 전망이다. 블록버스터급 RPG '크로매틱소울', 동화 풍의 그래픽을 사용한 '나인하츠', 전략적인 파티 플레이가 강점인 '몬스터피커', '카툰워즈3' 등이다. 유명 IP 기대작으로 손꼽혀 온 '제노니아S: 시간의 균열'과 '확산성 밀리언아서' 등 히트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내놓으며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컴투스는 글로벌 RPG 게임 '서머너즈 워 :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워)'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특색 있는 현지 마케팅을 진행해 인지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서머너즈워는 25개국 애플 앱스토어 게임 매출 1위에 올랐으며 애플 앱스토어 94개국, 구글플레이 85개국에서 매출 순위 TOP10에 진입했다. 또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 3800만건, 글로벌 일일 게임 이용자수(DAU) 최대 120만명을 돌파했다.

웹젠은 게임에 관한 지적재산권(IP)을 해외 게임사에 일정부분 양도해 수익을 나누는 'IP 제휴 사업'을 통해 국내 게임사들의 체질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최대 성과는 '뮤 온라인'을 기반으로 제작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뮤 오리진'이다.

넷마블을 필두로 게임빌, 웹젠 등 국내 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재촉하는 이유는 국내 시장이 좀처럼 예전의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 조사 결과를 보면 올 1월 모바일게임 앱 이용자 수는 2166만 명, 2월 2158만 명으로 0.4% 감소했다. 3월에는 2129만 명으로 전달보다 1.3%, 4월 2116만 명으로 0.6%, 5월 2036만 명으로 3.8%, 6월에는 1995만 명으로 2% 등 지속해서 줄었다.

그렇다 보니 국내 모바일게임 업체들은 미국과 유럽, 일본, 남미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은 아시아 국가들보다 모바일게임 이용자 수가 적고 시장 성장률도 낮지만 수익성이 훨씬 높다. 이용자 당 한달 평균 결제액을 살펴보면 아시아국가는 평균 4.17 달러이지만 서유럽은 4.95 달러, 미국·캐나다는 6.21 달러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제4 이통사업자 선정 절차 이달 말부터 시작할 예정"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9일 "주파수 할당계획 등을 마련해 이달 말께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사업자 신청을 접수 받을 계획이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7년 중 제4 이동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관건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후보가 나타나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드러난 후보군은 6차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서를 냈다가 고배를 마신 한국모바일인터넷(KMI), 2차례 신청했다 탈락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전국 소상공인이 주축이 돼 최근 결성한 우리텔레콤,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이 이끄는 퀀텀모바일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장에서는 CJ 그룹이나 태광 그룹, 현대백화점 그룹 등이 잠재적 후보로 거론된다.

CJ의 경우 알뜰폰(MVNO)과 케이블 방송사업(CJ헬로비전)을 하고 있다. 태광과 현대백화점도 케이블방송 사업(티브로드·현대HCN)을 하는 등 이동통신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부문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그룹들은 공식적으로는 제4 이동사업자 선정에 관심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중소 후보업체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하거나 해외의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임은정 기자

이통3사 '원스토어' 통합 시너지 가시화

출시 두달새 다운로드 1억 돌파
구매 이용자 수 1110만명 넘어

이동통신3사의 애플리케이션 마켓 원스토어가 출시 두달만에 다운로드 수 1억5200만건을 돌파하는 등 통합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9일 SK플래닛, LG유플러스, KT에 따르면, 원스토어는 6월 출시 이후 다운로드 수 1억5200만건, 구매 이용자 수 1110만명을 돌파했다.

7월 한 달에만 다운로드 수 9700만건, 구매 이용자 수 540만명을 기록했다.

원스토어는 앱 마켓 3사가 지난 6월 T스토어, U+스토어, 올레마켓의 서비스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가입 통신사 상관없이 동일한 앱과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고, 개발자는 하나의 규격으로 3사 앱 마켓에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SK플래닛, LG유플러스, KT는 지난 6월 3사가 손잡고 출범한 원스토어의 통합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SK플래닛·LG유플러스·KT 제공

포인트 적립, 마케팅 이벤트 등의 프로모션을 통해 대형 게임사들의 인기 게임들이 새롭게 입점해 3사 앱 마켓에 입점한 신규 게임의 출시 건수는 원스토어 이전 대비 47% 증가했다. 지난 4월 오픈한 통합 개발자센터는 현재까지 4만9000여명의 누적 방문자 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개발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재환 SK플래닛 디지털 콘텐츠 사업본부장은 "3사가 힘을 합쳐 새롭게 문을 연 원스토어 개발자센터 기반 앱 마켓이 고객과 개발자들에게 편의성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앱 마켓 산업의 발전과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해 3사가 긴밀하게 협력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정 기자 eunj71@

삼성SDS 임직원·가족 방학맞이 농촌체험 행사



삼성SDS(대표 전동수)는 전날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가하는 '여름방학맞이 농촌체험 & 일손돕기'(사진)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삼성SDS에 따르면 올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1000여명이지만 20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SDS 임직원과 가족 1100명은 화성 가시리마을, 영월 운학리마을, 횡성 밤두둑마을 등 전국 12개 자매결연 마을에서 옥수수·고추·토마토 등을 수확하고 두부 만들기, 떡메치기, 샌드 아트·천연 염색·갯벌 체험 등을 했다.

정호식 삼성SDS 차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하루 종일 딸과 여러 체험을 하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딸이 조금이나마 농촌의 일손을 도우면서 땀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아빠 점수를 약간이라도 만회한 것은 보너스이고요"라고 전했다.

삼성SDS는 추후 행사 횟수를 늘려 더 많은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오는 추석에 자매결연 마을의 특산품을 임직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임은정 기자



'말복 특집전'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은 13일까지 압구정본점과 무역센터점, 신촌점 등 수도권 8개 점포에서 '말복 특집전'을 진행한다. 여름철 보양식인 민어와 민물장어, 낙지 등을 각 주요 산지에서 직송 후 정상가의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제공

롯데, 4년 내 일자리 2만4000개 창출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 안에 신입사원과 인턴사원을 포함해 2만42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다.

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우선 올해 5200명의 정규직 사원을 뽑는다. 현재 신입공채 800명과 인턴사원 400명 등 1200명에 대한 상반기 채용이 진행중이다. 계열사별로 별도로 고졸 정규직 직원을 뽑고 있다.

내년에는 5550명, 2017년에는 6450명을 뽑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8년에는 올해보다 약 35% 늘어난 7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소상공인聯 '롯데' 불매운동 벌인다

입고거부·가맹해지 등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슈퍼와 롯데마트 불매운동과 롯데카드 거부 계획안을 발표한다.

연합회는 불매운동 스티커 제작, 국민 서명받기, (롯데카드) 가맹점 거부, 가맹계약 해지 운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롯데슈퍼와 롯데마트 앞에서의 집회도 계획 중이다.

기자회견장에는 슈퍼마켓점주, 비브랜드 편의점주 등 3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회 측은 카드가맹점 해지의 경우 상당히 많은 업소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길 기자

유통업계, 임·직원 연봉차 1위 '현대百'

유통업계 임직원 간 연봉차는 현대백화점이 70배를 웃돌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재벌닷컴(대표 정선섭)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연봉은 임원이 38억7200만원, 직원 5400만원으로 71.7배 차이가 났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상장사 임원은 평균 11억5704만원을 받았지만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4448만원에 그쳤다.

현대백화점 다음으로는 이마트가 54.9배로 높았다. 이마트 임원의 연봉은 15억3700만원, 직원은 2800만원이었다.

롯데쇼핑의 임원 연봉은 16억1900만원, 직원은 3379만원으로 47.9배 차이가 났다. CJ제일제당은 임원 23억8700만원, 직원5400만원으로 44.2배 수준이었다. 신세계그룹 임원 연봉은 평균 5억7767만원으로 직원 연봉 3030만원의 19.1배에 달했다.

/박상길 기자

'장마' 상품 울고, '무더위' 상품 웃고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여름 상품 판매에도 희비가 엇갈렸다.

9일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8일까지 여름 상품 매출을 살펴본 결과 장마 관련 상품 매출은 감소하고 무더위 관련 상품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사용이 잦은 우산 매출은 41%, 장화와 레인코트는 30.5%, 56.4% 씩 감소했다.



반면 연이은 폭염에 무더위를 식혀 줄 상품들은 판매 호조를 보였다.

대표 품목으로 생수가 41.6%, 탄산 음료가 39.8%, 이온 음료가 82.2%, 얼음이 155.1% 신장했다. /정은미 기자

韓 화장품, 美 시장 넘본다

아모레퍼시픽·설화수 등 미 전역에 매장 1000곳 열어

LG생건, 세포라 33개점 입점 네이처리퍼블릭, 서부 공략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세계 화장품 시장 1위인 미국에 진출, 프랑스·일본 등 세계 유수의 브랜드와 경쟁하고 있다.

9일 네이처리퍼블릭에 따르면 이달 중 미국 캘리포니아 로랜하이츠에 추가로 매장을 열어 서부 상권 공략을 강화한다.

지난달 LA의 대표 한인 상권인 윌셔로드에 미국 11호점을 연지 1개월여 만에 새 점포를 추가하게 됐다. 6월 오픈한 캘리포니아 산타아니타점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데 이어 새 매장이 문을 열면서 현지 가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국내 1위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은 시그니처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설화수·라네즈·아닉구딸 등 총 4개 브랜드가 미국에 진출해 있다.

단독 매장·백화점·멀티숍 등 4개 브랜드로 미국 전역에 10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미국에서 34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6월 한국 화장품 브랜드로는 최초로 뉴욕 고급 백화점 블루밍데일 본점에 입점했다. 설화수도 2010년 미국 진출 이후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체 유통망을 꾸리는 것보단 세포라와 같은 멀티숍을 활용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아직 낯선 한국 화장품을 알리기에는 많은 유통망을 갖고 있는 멀티숍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세포라만 해도 매장 수가 400여 개가 된다.

LG생활건강은 올해 3월 허브화장품 빌리프를 미국 내 세포라 33개점에 입점시켰다. 빌리프는 LG생활건강의 미국 진출 1호 브랜드다.

'더 트루 크림 모이스춰라이징 밤' 등 주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빌리프는 특히 세포라 온라인몰의 '모이스처라이저' 카테고리에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브랜드숍 잇츠스킨도 다음 달 세포라 온라인몰 입점이 확정됐다.

특히 소규모 업체의 멀티숍 입점이 활발하다. 조성아 22는 지난 4월부터 세포라 300개 매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동공미인 브로우 메이커'로만 약 1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업체는 아직 국내에 단독 매장이 없다. 9월에는 'C&T 블렌더' '바운스 업 팩트' 등 60개 품목을 추가 출시하고 세포라 10개 매장에 단독 매대도 구성할 계획이다.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리더스코스메틱은 이달부터 화장품 멀티숍 얼타 전점에 들어가고 있다.

성장세는 중국이 더 크지만 세계 1위인 미국 시장은 꼭 잡아야 하는 선진 시장이다. 대한화장품협회가 데이터모니터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주요 국가별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장 규모는 362억7000만 달러로 14.1%의 점유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서양의 화장품 트렌드를 따라가는 추세였는데 미국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신생 브랜드 죽이기" vs "노이즈 마케팅"

샘표식품·대상 청정원 제품 콘셉트 도용 논란

샘표식품(대표 박진선)과 대상(대표 명형섭)간 제품 콘셉트 도용 논란이 벌어졌다.

샘표식품은 9일 대상 청정원이 자사 서양식 브랜드 폰타나의 '맛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품 콘셉트를 도용했다고 밝혔다.

샘표식품 측에 따르면 대상 청정원은 폰타나의 '맛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여행' 콘셉트를 그대로 도용해 제품 패키지 디자인, 설명 문구, 매장행사의 상품판매대 배너광고 등에 사용했다.

이에 샘표식품은 대상 청정원 파스타소스 담당자에게 폰타나 브랜드 및 파스타소스 슬로건, 콘셉트 도용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



샘표 폰타나(좌)와 대상 청정원(우)의 파스타소스 패키지 뒷면 비교 /샘표 제공

샘표식품 관계자는 "브랜드 콘셉트의 방향성을 잡고 제품을 기획, 출시하기까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이 투입된다"며 "특히 이제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브랜드의 콘셉트를 그대로 도용해 사용하는 것은 죽이기 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상 측은 "'맛으로 떠나는 여행'은 상표권으로 등록돼 있는 것도 아니며 과거부터 서적이나 블로그 등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상용 문구"라고 반박했다.

대상 관계자는 "'맛으로 떠나는 여행'은 여러 서적이나 블로그 등에서 볼 수 있는 일반화된 상용 문구로 상표권으로도 등록돼 있지도 않다"며 "샘표식품 측의 주장은 파스타소스 1위 브랜드인 청정원을 공격하려는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광복 70주년 '자수로 새긴 태극기' 9일 서울 용산 현대아이파크몰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재봉틀로 태극기를 만들어 보며 어린이들에게 태극기의 의미를 알려주고 올바로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어린이 태극기 교실'이 마련됐다. /뉴시스

'허니통통 애플' 180만 봉지 판매 돌파

해태, 과일 맛 스낵시장 주도



해태제과(대표 신정훈)는 과일 맛 감자스낵 '허니통통 애플'이 출시한 지 20일 만에 186만 봉지가 팔려 2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제과업계에서 히트제품으로 간주하는 월 매출 10억원을 불과 20일 만에 3배 가까이 넘어선 것이다.

허니통통 애플은 국내 최초의 과일 맛 감자스낵이다. 닐슨코리아 기준으로 지난 5월과 6월 두 달 연속으로 허니버터칩류 제품에서 매출 1위에 오르며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은미 기자

해양심층수, 전 식품에 사용 가능해진다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원료로 쓸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 기준'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바닷속 200m 이하에서 생성되는 해양심층수는 그동안 먹는 물과 화장품 등에 제한적으로 쓰였으나 식품 원료로서 안전성 기준이 없어 식품에는 쓸 수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정의, 원료 등 구비요건, 제조·가공 기준, 규격 등을 정해 해양심층수를 식품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은미 기자

CJ '이연복·레이먼킴 셰프 식당' 이벤트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 이연복과 레이먼킴 두 셰프와 함께 25일 청담 씨네씨티 엠 큐브에서 '백설과 함께하는 이연복&레이먼킴의 셰프 식당'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는 20일까지 CJ제일제당 홈페이지(www.cj.co.kr)와 CJ ONE홈페이지(www.cjone.co.kr) 이벤트 페이지에서 두 셰프가 만들었으면 하는 요리를 남기면 된다. /정은미 기자

아모레퍼시픽 '헤라 옴므 블랙 라인' 출시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의 헤라 옴므에서 남성 프리미엄 스킨케어 '헤라 옴므 블랙 라인'을 업그레이드해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블랙의 핵심 성분은 블랙 퍼펙트 블렌딩TM으로 블랙 트러플(송로버섯)과 아사이베리 추출물의 복합원료로 만들었다.

블랙은 스킨, 로션 그리고 스킨, 로션, 에센스 겸용의 올인원 제품인 플루이드 3종으로 구성됐다.

'스테디셀러'로 불황 극복

밀키스·솔의눈·맥콜 등 마케팅 없이 꾸준히 인기 연 100억원대 매출 유지



사진 왼쪽부터 롯데칠성음료 '밀키스'와 '솔의눈', 동아오츠카 '데자와', 일화 '맥콜', 웅진식품 '아침햇살'

음료 업계가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가운데 별다른 마케팅이나 홍보 없이 꾸준히 사랑 받는 제품들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9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출시한 '밀키스'는 특별한 광고 없이 연간 550억원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밀키스는 우유 맛을 가미한 탄산음료라는 차별화된 제품 콘셉트로 콜라와 사이다가 주도하는 탄산음료 시장에서 꾸준히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밀키스는 러시아 등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아 지난해만 1320만 달러(원화기준 약 147억)를 수출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수출액은 8990만 달러에 이른다.

'솔의눈' 역시 매니아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이다. 1995년 출시돼 올해로 21년째를 맞고 있는 스테디셀러 음료로 지난해에만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체내 면역세포 활성화와 항바이러스 등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솔싹추출물이 함유돼 있어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3~4월에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동아오츠카가 1997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오리지널 밀크티 브랜드 '데자와'도 마케팅 없이 연간 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효자 상품이다. 데자와는 지난해 서울대 구내 매점과 자판기에서만 한달 평균 1만2000여개가 팔리는 제품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이 수치는 서울대 총 재학생 수와 맞먹는다.

'포카리스웨트 분말'도 등산과 바캉스 등 야외 활동이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상승 중이다. 포카리스웨트 분말은 물 1리터에 분말 1포를 넣으면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를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지난해에만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60% 이상 신장한 12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일화가 1982년에 선보인 '맥콜'의 인기도 꾸준하다. 100% 국내산 유기농 보리 만으로 만들어진 맥콜은 보리 특유의 구수한 맛을 살린 건강 탄산음료다.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확산되면서 연간 250~300억 내외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웅진식품이 1999년 선보인 '아침햇살'은 출시 이후 계속해 국내 쌀음료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간 매출액은 약 130억원 정도다.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6년 간 아침햇살의 매출 누적액은 소비자 가격 기준 8600억원에 이른다.

웅진식품 관계자는 "출시 당시 워낙 인기가 좋아 현재 매출이 전성기 만큼은 아니지만 차별화된 제품력과 맛으로 경쟁 제품 제치고 유일하게 쌀음료 시장에 살아남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음료 업계 스테디셀러 제품들은 맛, 향 등 대체 불가한 독특한 특징이 있거나 해당 제품을 음용하는 두터운 매니아층이 형성돼 있는 등 이유로 매년 바뀌는 트렌드에 상관없이 매출이 꾸준한 편"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외식업 '희비'… 찻집 뜨고 술집 지고

1조 매출 식품기업 19개… 1위 'CJ제일제당'

최근 외식업에서 매출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업종은 커피·주스 등 음료 전문점이고, 하락세인 업종은 주점으로 나타났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2015년도 식품산업 주요지표'에 따르면 2013년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을 포함한 식품산업 규모는 약 157조원으로 전년보다 2.9% 성장했다.

9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하면 70.7%(약 65조원) 증가했다. 2004~2013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식품제조업 6.7%, 외식업 5.9%였다.

식품제조업 중에는 후추·겨자 등 천연·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2조9420억→3조5219억원·19.7%↑), 두부·유사식품 제조업(4502억→5385억원·19.6%↑), 곡물·과실 등으로 술을 만드는 기타 증류주·합성주 제조업(1599억→1897억원·18.6%↑) 등이 매출액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감미용 조제품이나 색소용 식품 등을 생산하는 기타 식품첨가물 제조업(5930억→3819억원·35.6%↓), 수프·균질화식품 제조업(3769억→2778억원·26.3%↓) 등의 매출은 급감했다.

외식업은 비알콜 음료점업의 매출 증가율이 11.2%(3조2779억→3조6443억원)로 가장 높았다. 비알콜 음료점업에는 커피전문점, 찻집, 주스전문점 등이 포함된다.

이어 한식·양식·일식·중식을 제외한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3582억→3869억원·8%↑), 제과점업(3조9698억→4조2383억원·6.8%↑), 치킨 전문점(2조6천586억→2조8272억원·6.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카바레·나이트클럽 등 무도유흥 주점업(4276억→3961억원·7.4%↓), 호프집·선술집·와인바 등 기타 주점업(7조2117억→7조1948억원·0.2%↓) 등 주점업은 부진했다. 가라오케와 룸살롱을 포함한 일반유흥 주점업 매출도 1% 증가(3조2485억→3조2814억원)하는 데 그쳤다.

공시정보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식품제조기업은 19개사였다.

매출 실적은 CJ제일제당이 4조3290억원으로 1위였다. 롯데칠성음료(2조837억원), 농심(1조813억원), 오뚜기(1조7451억원), 롯데제과(1조746억원), 파리크라상(1조6532억원), 롯데푸드(1조6330억원) 등의 순이다.

한편 지난해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5조300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연평균 3.9% 성장해 올해 5조6000억 달러, 2018년 6조3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정은미 기자

개관 6주년 특별만찬 선배

쉐라톤 인천 호텔

성악공연에 와인 곁들여 호텔숙박권 등 경품 추첨



인천 송도 신도시 중심에 있는 쉐라톤 인천 호텔이 개관 6주년을 기념해 특별 만찬 '쉐라톤의 어느 멋진 날'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21일 금요일에 열리는 이번 특별 만찬은 성악가의 아름다운 솔로 공연을 시작으로 엄선된 와인과 풍미 가득한 요리들로 구성된다.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과 다양한 행운의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디너에서는 쉐라톤 인천 호텔의 중국식 레스토랑 유에, 일식 레스토랑 미야비, 이태리 레스토랑 베네, 뷔페 레스토랑 피스트의 셰프들이 준비한 특별 요리를 와인과 함께 코스별로 즐길 수 있다.

행사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다. 디너 티켓 가격은 1인 10만원(세금·봉사료 포함)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 만찬 2인 이용권과 함께 송도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클럽 객실, 라운지에서의 이브닝 칵테일과 클럽 라운지에서의 조식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포함돼 있는 객실 패키지도 선보인다. 가격은 23만5000원(세금·봉사료 별도)이다.

자세한 사항은 www.sheratonincheon.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디너 티켓 문의 032-835-1112, 객실 패키지 문의 032-835-1004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핫식스로 청춘 에너지 충전하세요

롯데칠성음료

내일까지 해운대서 이벤트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10일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중앙광장에서 '핫식스 여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청춘 충전! 에너지 발전소, 핫식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30대 소비자들에게 핫식스만의 청춘·젊음·열정의 이미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칠성음료는 해운대 중앙광장 내 별도로 마련한 '핫식스 존(Zone)'에서 게임존·이벤트존·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10일까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존'에서는 핫식스 브랜드 이미지를 반영해 특수 제작된 '행운의 핀볼 게임'을 운영하고 '이벤트존'에서는 전문 MC가 진행하는 댄스대회·단체 가위바위보·핫 바디(Hot Body) 선발대회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게임이 펼쳐진다.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는 해운대 스마트비치 이용권·영화예매권·에어쿠션·방수 지퍼백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포토존'은 가발, 선글라스 등 다양한 소품을 통해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휴게존'에서는 다양한 편의 시설과 함께 선착순 500명에게 1회용 타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해운대를 찾은 소비자들이 핫식스 에너지 발전소에서 무더위를 잊고 활력과 즐거움을 충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中 청도로 명품 골프여행 떠나세요

아이엘투어

6일 55만원·4일 49만원 캐슬렉스 상품 인기몰이


캐슬렉스 전경.

중국 청도의 캐슬렉스 골프 상품이 인기다. 제주도보다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골프 마니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상품은 주중 6일 55만원, 4일 49만원으로 즐길 수 있는 명품 골프여행이다.

청도캐슬렉스cc는 중국 속 유럽이라고 불리는 산동성에 있다. 36홀 규모의 골프 코스로 중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골프클럽으로 알려져 있다. 캐슬렉스cc의 아름다운 코스와 5성급 수준의 골프텔은 중국 내 최고급 골프 리조트로도 손색이 없고 인천공항과 50분 거리다. 주변에 다양한 관광지와 함께 가족단위의 여행지로도 최고인 골프장이다.

필리핀 대통령의 별장으로 유명한 마닐라 푸에르토아즐 CC는 3박 5일 39만원, 로얄노스우드 마스피노호텔 숙박 이용 패키지가 49만원으로 숙박, 식사, 무제한라운딩이 포함된 상품으로 한국 골퍼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이다. 또한 골퍼들에게 하나의 로망인 클락 골프 뉴아시아CC는 3박 5일 69만원, 세부의 퀸스 아일랜드cc 5일 69만원, 메르세데스골프 59만원으로 한국인이 운영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골프상품이다.

그리고 일본 북해도 루스츠 사토레저 4일 129만원에 특가 상품이 나와 있으며 오는 26일에 한해서 94만원에 판매 중이다.

추석연휴나 겨울 성수기에 해외 골프 라운딩을 다녀오고 싶다면 지금 상담을 받고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문의: 02-541-4242

/최치선 기자 chisunti@

GroupY, 종합 디자인회사 발돋움

<그룹와이>

윤디자인연구소 사명 변경 온·오프 미디어 콘텐츠 제작 ICT 비즈니스 모바일 구축

윤디자인연구소(편석훈 대표)가 ㈜그룹와이(Group Y)'로 사명을 변경하고 타이포그래피를 기반으로 한 '종합 디자인 회사'로의 발돋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룹와이(www.groupy.co.kr)는 이를 위해 지난 일년 여 동안 타이포 분야 강화를 위해 토탈임팩트 서울-유럽과 MOU를 맺었다. 또 종합 광고 대행사 '와이컴즈'를 신설했으며, ICT 합병, 캐릭터 디자인 사업부 신설 등 많은 준비를 해왔다.

그룹와이는 각 분야 최고의 기획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래픽 디자이너, 브랜딩 전문가, 아티스트, 뮤지션, 포토그래퍼, 영상 디자이너, 폰트 디자이너로 구성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컨설팅 그룹'으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필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생명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Smart Group, Smart Creative'를 가치로 삼아 인큐베이팅 브랜드에서부터 메이저 브랜드까지 기존보다 효과적인 크리에이티브 해결책 제시를 하며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다.

'그룹와이'의 사업은 타이포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한 서체 개발, 광고영상·그래픽, 온·오프라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ICT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바일 구축 서비스 등 크게 4분야로 나뉜다.

편석훈 대표는 "포괄적인 의미의 종합 디자인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룹와이'로 사명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타이포그래피를 근간으로 전문성은 높이고,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 서비스로 재미있는 디자인, 원스톱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타이포에서 CI, BI가 나오고, 영상, 광고, 그래픽, 제품, 더 나아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의 홍보 확산까지, 이 모든 것이 그룹와이에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최치선 기자


금호화순리조트 내 아쿠아나 전경.

금호리조트, 늦여름 알뜰 패키지 쏜다

화순, 객실 1박·아쿠아나 2매 16일~9월 '9만4000원' 판매 설악, 주중 7만원 패키지 선보여

금호리조트에서는 마지막 여름을 만끽하며 휴가를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늦여름 알뜰 휴가 패키지를 출시한다. 오는 16일부터 9월까지 금호화순리조트에서는 패밀리 객실 1박과 1인당 4만원대 아쿠아나 이용권 2매를 포함하는 아쿠아나패키지 상품을 약 9만4000원에 내놨다. 또한 강원도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금호설악리조트에서는 객실 1박과 사우나이용권 2매를 포함해 주중 7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한다.

금호화순리조트에서는 말로만 휴식이 아닌 '진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화순은 온천이 좋기로 유명하며, 화순아쿠아나의 온천수는 경험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 효과를 알 수 있을 정도다. 신경통, 아토피성 피부염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알카리성 리튬성분의 온천수로 알려져 온천여행만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특히 사계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순아쿠아나에는 100% 천연온천수만을 사용해 건강과 레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실내외 야외풀에 워터슬라이드, 아쿠아플레이, 놀이분수 등 물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어 가족 여행지로 제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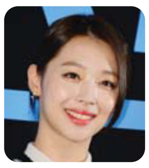
금호화순리조트에 머물며 온천수로 물놀이를 즐긴 후에는 방랑시인 김삿갓이 들렸다는 화순적벽과 천불천탑 운주사를 비롯해 둔동마을 숲정이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선에 선정되기도 했던 세랑지, 시원한 대나무 숲이 우거져 힐링을 선사하는 담양과 화순전통시장 등을 둘러보면서 화순의 담백한 매력에 푹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에프엑스 탈퇴 확정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 **설리**가 팀에서 탈퇴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설리와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에프엑스를 탈퇴하고 연기 활동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7일 전했다.



심엔터와 계약 만료

배우 **엄정화, 엄태웅**이 심엔터테인먼트를 떠났다. 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지난달 31일 두 사람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종료했다"고 전했다. 엄정화, 엄태웅 측은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콘컴퍼니 새 둥지



배우 **유오성**이 제이콘컴퍼니에 새 둥지를 틀었다. 제이콘컴퍼니는 7일 "지난 몇 년 동안 소속사 없이 활동했던 배우 유오성이 제이콘컴퍼니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영화 '친구2'의 인연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5년 교제 여친과 결혼



가수 **박현빈**(33)이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5년 동안 교제해온 여자친구와 웨딩마치를 올렸다. 박현빈은 예비 신부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행복하다"며 "첫 만남에 반해 입맞춤을 했다"고 말했다.

'객주 2015' 캐스팅



배우 **문가영**이 KBS2 새 수목극 '장사의 신-객주 2015'에 캐스팅됐다. 극 중에서 의리있고 속 깊은 여장부 월이 역을 맡아 장혁, 한채아 등과 호흡을 맞춘다. '장사의 신-객주 2015'는 오는 9월 중 첫 방송 예정이다.

"좋아하는 건 밤새워 집중할 수 있어"

드라마 '상류사회' 박형식



현역 아이돌인 박형식(25)은 지난달 28일 종영한 SBS '상류사회'에서 제멋대로지만 미워할 수 없는 재벌2세 유창수 역을 잘 소화해 주목 받는 젊은 배우 대열에 합류했다. 세 번째 장편 드라마 출연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창수는 몸에 잘 맞는 옷이었다. 그 뒤에는 노력이 있었다.

"발성과 발음을 전부 고쳤어요. 타고난 습관 때문에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부장이니까 가볍게 보이지 않으려 톤을 만들어야 했고, 대본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발음을 고쳐나갔죠. 대사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구요. 몸을 만들려고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운동도 하고요."

'상류사회'는 박형식에게 성장의 계기가 됐다. 극을 이끌어가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얻은 경험은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이전까지는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끄집어서 이용했다면 '상류사회'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냈죠. 좀 더 (연기에)도전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구요. 표현할 수 있는 한계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요. 부딪혀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번지점프처럼 '한 번 뛰어내렸는데 두 번 못 뛰어내리겠냐' 싶은 거죠."

박형식은 연습생을 거쳐 2010년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했다. 팀은 유명세를 얻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로 주목받지 못했다.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

"원래 발라드를 하고 싶었죠. 그러던 중 제국의 아이들에 합류하게 됐어요. 발라드를 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뮤지컬 '늑대의 유혹'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구요. 연기에 관심이 생기던 참에 드라마 제의가 들어왔고 그때 연기의 맛을 느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건 밤을 새우면서도 했어요. 졸리지도 않고 오히려 집중력이 나와요."

박형식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다. 좌우명 '모두 다 사랑하자'처럼 매사를 즐길 줄 알고 순간과 인연을 소중하게 여긴다.

"저는 사람을 미워하는 법을 몰라요. 누군가 이기적인 행동을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존중·배려·이해가 있으면 이 세상에 이룰 수 없는 게 없다고 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나가면 자연스레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모일테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 배역 위해 발성·발음 기초부터 연습
> 연기 욕심… 두렵지만 자신감 생겼죠
> 존중·배려·이해 있으면 뭐든 가능해 ”

제국의 아이들 데뷔 후 3년 간은 무명이나 다름 없었다. 그것도 추억이라고 말한다.

"좁은 집에서 13명이 살고 있는데도 즐거웠어요. 게임도 하고 편의점에서 맥주에 냉동식품도 먹고요. 연습생 때는 용인에 있는 학교에서 합정에 있는 연습실까지 매일 출퇴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어떻게 했지 싶은데 그때는 재밌기만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는 '상류사회'에서 기어코 사랑을 이뤄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 속에서도 연애 본연의 모습도 보여줬다.

"사랑의 아픔 때문에 눈물이 나는 감정을 알았어요. 그런 사랑을 해보진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느꼈죠. 정말로 연애하는 것 같았어요. 감정이나 분위기가 카메라에 담기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담긴다는 걸 알게됐죠."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춘천은 지금 인형들의 난장

인형극제 12일까지 열기

국내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강원도 춘천시가 지금 인형들의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올해 27회째를 맞는 '춘천인형극제 2015'가 지난 7일 '형형색색 퍼펫 카니발'로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12일까지 '코코바우의 결혼'이라는 주제로 화려한 난장을 펼친다.

춘천 공지천 의암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개막식은 춘천 시민과 인형극단, 자원봉사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인형극단과 춘천 시민들의 거리 퍼레이드와 인형극단들의 거리 공연이 더해져 열기가 달아올랐다. 특히 춘천인형극제 마스코트인 코코바우의 결혼식에서는 세계적인 인형극작가 제임스 데이비스가 제작한 4m가 넘는 대형인형 '코코바우와 봄내'가 행진해 장관을 이뤘다.



춘천인형극제 마스코트인 '코코바우'의 결혼식 장면.

1989년에 시작된 춘천인형극제는 꿈과 사랑이 아름답고 기발하게 실현되는 인형극 축제다. 세계 각국의 인형극단들이 참여해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장려하고, 개성이 넘치는 인형극들을 선보인다. 인형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양하고 관객친화적인 부대행사는 예술적 체험을 제공한다. 올해 무대는 국내외 70개 팀이 인형극장 곳곳에서 120회의 공연을 한다. 문의: 033) 242-8452

/김민준 기자 mjkim@


OFFICIAL SELECTION
FESTIVAL DE CANNES
제 68회 칸영화제 특별상
★★★★★
삶의 여정을
우아하게 탐구하는
걸작!
- CANNES
감동적이고 섬세한,
괴물 같은 작품!
- THE PLAYLIST
절묘한 유머와
드라마의 조합!
- HOLLYWOODREPORTER
일생에
한 번은 마주할
어느 날
나의 어머니
mia madre
〈아들의 방〉 난니 모레티 감독 작품
8월 20일,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세이상관람가 수입•배급 (주)티캐스트 tcast cinecube

가난한 노동자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film review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안국진 감독의 첫 장편영화
설득력 있는 이정현의 열연
夏 대작들 속 빛나는 발견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는 오직 성실하게 살아온 어느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이면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 영화다. '파수꾼'(윤성현 감독), '잉투기'(엄태화 감독) 등 주목할 신인 감독들을 배출해온 한국영화아카데미(KAFA)의 장편제작연구과정 작품이다. 단편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더블 클러치'의 안국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의 주인공 수남(이정현)은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이다. 16세 때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공장 취직이 아닌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한 수남은 학교를 다니며 자격증을 14개나 따며 능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수남은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한다. 그리고 술을 배우고 남자를 만나게 된다.

수남의 바람은 소박하다. 사랑하는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것이다. 공장에서 만난 남자 규정(이해영)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된 수남은 아이를 낳기를 바란다. 그러나 규정은 아이보다 집이 먼저라고 말한다. 하지만 가난한 노동자 부부에게 집은 멀고 먼 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규정은 공장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다. 그때부터 수남은 남편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열심히 하기 시작한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가 다루는 소재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꾸준히 일한 만큼 꾸준히 오르는' 집값 문제, 그리고 재개발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 등이다. 그러나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빌려온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영화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판타지의 색깔로 녹여낸다. 색다른 시도를 그럴싸하게 담아낸 기발한 연출력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가장 큰 매력이다.

그 중심에는 수남이라는 독특한 캐릭터가 있다. 앨리스가 토끼에 이끌려 이상한 나라를 모험하듯, 수남 또한 무언가에 홀린 듯 한국 사회를 떠돈다. 영화는 가난한 노동자 여성이지만 동시에 순수함 그 자체인 수남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모습을 바라본다. 그리고 오직 탐욕만을 좇으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세상이 곧 한국 사회라고 말한다. 인간에 대한 존엄과 품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죽음을 맞이할 때만 존엄과 품위를 갖출 수 있을 뿐이다.

코믹 잔혹극을 표방한 만큼 영화는 다소 잔혹한 장면을 담고 있다. 그 잔혹함 속에 쓴 웃음이 짙게 배어있다. 쉽지 않은 수남을 설득력 있게 소화해낸 이정현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여름 대작들 사이에서 놓쳐서는 안될 빛나는 발견이다. 청소년 관람불가. 8월 13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10분

'갈아치우는 남자'가 대망의 5승 달성에 1승만을 남겨놓고 있다. 위험한 짓을 골라서 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30대 주부, 거침없는 욕설을 내뱉는 아빠 때문에 고민이라는 8살 소녀, 일주일에 7일은 취해서 진상 짓을 하는 여동생 때문에 고민인 30대 주부가 도전장을 내민다. 아이돌 그룹 B1A4의 산들·진영·공찬, 신인 여배우 공승연이 게스트로 출연해 고민상담에 나선다.

◆ JTBC '비정상회담'

오후 11시

'냉동인간' GOD의 박준형이 출연해 '과학과 인간윤리'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과학 발달은 인간을 병들게 한다는 주장을 토대로 G11은 불꽃 튀는 토론을 벌인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40분

세월을 역주행한 골드미스계의 동안 지존 최화정의 냉장고가 공개된다. 미카엘과 박준우는 본토에서 먹는 듯한 이국적인 요리를 주제로 대결을 벌인다.



◆ tvN '막돼먹은 영애씨 14'

오후 11시

38살 노처녀 인생을 살고 있는 영애는 회사 사장 승준과 1년째 썸을 타고 있다. 어느날 승준이 갑자기 잠적해버리자 영애는 직접 승준을 찾아 중국으로 간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일 (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901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발명이 팡팡!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1 (재) 30 헬로 코코몽(1·2)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우리말 겨루기	50 오늘부터 사랑해 (88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41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45회)	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0 EBS 뉴스 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재)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65회)	30 생생정보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딱 너 같은 딸 (61회)	00 SBS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 <틴틴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문화유산 코리아 (영어자막) (재)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가요무대	00 너를 기억해 (15회)	00 화정 (35회)	00 미세스캅 (3회)	45 달라졌어요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백투더퓨처 1>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광복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세계와 함께, 코리아	15 힐링캠프 500인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20 해외걸작다큐 히로시마, 그 후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특파원 현장보고 (재)	15 MBC 뉴스 24 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0 스포츠 특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6회) (재)		30 샘과 레이먼의 올리브 쿠킹타임 듀엣 (26회)			◆ 해외야구 05:10 텍사스 vs 시애틀 09:05 LA다저스 vs 피츠버그 
19시	55 JTBC 뉴스룸	40 여행해도 괜찮아 (1회)	00 주문을 걸어 (4회) 55 오늘 뭐 먹지? (8·9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27회)	50 깡철이	
20시	50 JTBC 뉴스룸	40 명단공개 (75회)		00 희귀 동물들의 천국, 페루 마누강		
21시	40 냉장고를 부탁해 (39회)	40 집밥 백선생 (12회) (재)	00 유미의 방 (6회) 35 한식대첩 3 (12회)	00 세렝게티의 사자들		
22시				00 사이언스 오브 데인저 (11·12회)	00 언더 더 스킨	
23시	00 비정상회담 (58회)	00 막돼먹은 영애씨 14 (1회)	00 2015 테이스티로드 (25회) 55 로맨스가 필요해 2012 (1회)	00 <사상 최악의 참사> 노르웨이 총기 난사 사건		
24시	30 화이트 스완 (11회)	20 코미디 빅리그 (132회) (재)	50 로맨스가 필요해 2012 (2회)	00 리얼 앵그리 버드	10 트랜스포터	

기성용,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서 부상

"심각하지 않아 다음주 출전 가능"
스완지시티, 첼시와 2-2로 비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15-2016시즌이 개막전을 열고 화려한 막을 올렸다.

'디펜딩 챔피언' 첼시는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스완지시티와의 홈 개막전에서 2-2로 비겼다. 스완지시티 소속인 국가대표 미드필더 기성용(26)은 선발로 출전했지만, 전반 41분에 오른쪽 다리 근육 통증으로 잭 코크와 교체됐다.

스완지시티는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는 이변을 일으킨 뒤 이번 시즌에도 첼시를 괴롭히며 2년 연속 '개막전 신데렐라'가 됐다.

스완지시티는 전반 7분 코너킥 상황에서 바페팀비 고미스의 헤딩슛, 15분에는 기성용의 묵직한 중거리슛 등으로 첼시 골문을 위협하며 기선을 잡는 듯했다. 그러나 선제골은 전반 23분 첼시 미드필더 오스카르의 몫이었다. 오스카르는 페널티 지역 바깥 왼쪽 대각선 지점에서 얻은 프리킥을 그대로 오른발로 차넣어 1-0을 만들었다.

스완지시티는 전반 29분 가나 출신 미드필더 앙드레 아유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비수 페데리코 페르난데스가 전반 30분 자책골을 허용하며 첼시에 역전을 허용했다.

스완지시티는 후반 10분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키며 첼시를 몰아붙였지만 역전 골까지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경기 후 개리 몽크 스완지시티 감독은 "기성용의 햄스트링(허벅지 뒤쪽 근육) 부상은 심각하지 않다"며 "다음 주 뉴캐슬과의 2라운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우승 후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날 토트넘과의 개막전에서 전반 22분 토트넘 수비수 카일 워커의 자책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이정용(27)이 결장한 가운데 노리치시티를 3-1로 제압했다. 레스터시티는 선덜랜드를 4-2로 대파했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8일(현지시간) 첼시와의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전한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오른쪽)이 첼시 미드필더 오스카와 볼다툼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동아시안컵 여자축구, 아쉬운 준우승으로

김정미, 최우수 골키퍼로 올라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의 수문장 김정미(인천현대제철)가 201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이하 동아시안컵) 최우수 골키퍼에 올랐다.

동아시아축구연맹은 8일 여자축구 마지막 경기인 중국-일본 전을 끝으로 이번 대회를 마감하고, 개인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MVP)에는 북한을 우승으로 이끈 위정심이 뽑혔다. 위정심은 지난 1일 중국과의 1차전에서 결승골을 포함해 2골을 터뜨리며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최다 득점상에는 일본과의 2차전에서 두 골을 몰아넣고 이날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쐐기골을 넣은 북한의 주장 라은심(3골)이 선정됐다. 최우수 골키퍼에는 김정미의 몫으로 돌아갔다.



최우수 골키퍼상 수상한 김정미.

김정미는 북한에 두 골을 내주기는 했지만, 앞서 중국 및 일본전에서 '슈퍼 세이브'를 선보이며 한국의 승리를 이끌었다.

한편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8일 저녁 중국 우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북한과의 동아시안컵 3차전에서 0-2로 패하며 우승컵을 북한에 넘겨줬다. 한국은 2승1패로 대회를 마감하면서 준우승에 그쳤다. 북한은 지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컵을 안았다.

북한은 0-0으로 맞선 전반 22분 골문 앞 20여m 지점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윤송미가 왼발로 때린 공이 수비벽에 맞아 궤도가 살짝 바뀐 뒤 한국의 골문 안으로 튕겨 들어가면서 선제점을 얻었다. 후반 6분엔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패스를 받은 라은심이 골지역 앞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한국 수비수를 제치고 슈팅, 추가점을 기록했다. /김민준 기자

강정호, 1안타 1타점

추신수, 플래툰 시스템에 결장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안타와 타점을 1개씩 챙겼다.

강정호는 9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2회말 첫 타자로 나온 강정호는 다저스 선발 맷 레이토스의 높은 공을 받아쳐 중전 안타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1사 2, 3루에서 3루 주자로 있다가 프란시스코 세르벨리의 1루수 땅볼 때 홈을 노렸으나 홈에서 아웃됐다.

두 번째 타석에서 강정호는 결승타가 된 시즌 36번째 타점을 올렸다.

4-4로 맞선 3회말 1사 2루 상황에서 2루 주자 앤드루 매커천이 3루 도루를 감행하자 강정호는 2루수 땅볼을 쳐 매커천의 득점을 이끌었다.

이후 5회말 포수앞 땅볼, 8회말 우익수 직선타로 물러났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94에서 1리 떨어져 0.293(297타수 87안타)이 됐다. 피츠버그는 6-5로 승리해 3연승을 달렸다.

한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시애틀 매리너스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텍사스 제프 배니스터 감독은 이날 선발투수가 좌완 마이크 몽고메리가 나서자 플래툰 시스템을 가동해 주전급 좌타자를 선발 라인업에서 뺐다. 텍사스는 11-3의 대승을 거뒀다. /김민준 기자





9일 열린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이정은이 물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은, 4년 만에 우승컵… 통산 5승째

제주 삼다수 골프

박인비는 공동 8위 기록

이정은(27·교촌F&B)이 4년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우승하며 통산 5승째를 올렸다. 반면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첫 우승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정은은 9일 제주 오라컨트리클럽(파72·6519야드)에서 열린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5억원)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로 박소연(23)과 동타를 이룬 이정은은 18번홀(파4)에서 치른 연장전에서 버디로 우승을 확정했다. 이정은이 우승한 것은 2011년 8월 넵스 마스터피스 이후 4년 만이다.

박인비는 이날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묶어 이븐파 72타를 치고 최종합계 2언더파 214타로 공동 8위를 기록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박인비는 LPGA 메이저 대회 4개를 석권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의 위업을 달성했지만, 한국에서는 14차례 대회에 출전해 아직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김민준 기자

“Uncertainty remains concerning the legitimacy of Chairman Shin Dongbin’s registration of L Investment Company”

신동빈, ‘L투자’ 대표 등기 미스터리… 등기신청서 무단 작성 의혹

Lotte Group’s current Chairman, Shin Dongbin, has been a dominant force in the company ever since his tenure as CEO over the group’s key divisions, Japan Lotte Holdings and L-investment companies.

Unfortunately for Chairman Dongbin, this does not automatically entitle him to preferential consideration for the Lotte Group CEO position in the mind of his predecessor, Shin Gyukho.

The former Lotte Group CEO has made his reservations about Chairman Dongbin’s inaugural proceedings well known. In particular, Gyukho’s concerns revolve around suspicions that Chairman Dongbin forged legal documents which imbued Dongbin with authority over nine of Lotte’s investment companies.

As these documents required the validation of former CEO Gyukho, who denies their legitimacy, the probability of illegality surrounding Chairman Dongbin’s action remains high.

If this assertion of wrongdoing proves valid, Chairman Dongbin may expect to be criminally prosecuted for forgery.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연합뉴스가 6~7일 도쿄에서 L투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신동빈 회장은 L투자회사 12곳 모두에 올해 6월 30일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지난달 31일 자로 이런 사실이 등기됐다. 사진은 12개 L투자회사의 등기부등본. /연합뉴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은 외형상 한·일 롯데 모두를 장악했다. 롯데그룹 지배의 핵심고리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두곳 모두의 대표이사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신 회장의 잇단 행보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뜻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16일 시행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 취임도 ‘무단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등기 신청일인 지난달 31일 당시 L투자회사 가운데 9곳의 대표이사는 신 총괄회장이 맡고 있었다. 당연히 해당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신 총괄회장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정황 상 이들 등기 신청서에 신 총괄회장이 자의로 기명하고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이번 등기가 신격호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신동빈 회장이 관여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1			2	4				5
6	2	7						
		9		1	6			
					5	4	8	
		6				2		
	5	8	6					
			3	2		6		
						5	9	1
7				6	9			8

8	9		2					
2				1	4	8		
1		5				4		
					7			
7		1	6		3	5		2
			8					
		2				1		4
		3	4	9				8
					2		7	6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1	8	3	2	4	7	9	6	5
6	2	7	9	5	3	8	1	4
5	4	9	8	1	6	7	3	2
2	3	1	7	9	5	4	8	6
9	7	6	1	8	4	2	5	3
4	5	8	6	3	2	1	7	9
8	9	5	3	2	1	6	4	7
3	6	2	4	7	8	5	9	1
7	1	4	5	6	9	3	2	8

8	9	4	2	6	5	3	1	7
2	3	7	9	1	4	8	6	5
1	6	5	3	7	8	4	2	9
5	4	9	1	2	7	6	8	3
7	8	1	6	4	3	5	9	2
3	2	6	8	5	9	7	4	1
9	5	2	7	8	6	1	3	4
6	7	3	4	9	1	2	5	8
4	1	8	5	3	2	9	7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취업·결혼이 안돼 답답합니다
눈높이를 낮춰 노력하세요

농농농 78년 5월 16일 양력 오시

Q 집안 형편과 제 역량부족으로 인해 대학을 중퇴하고 일하다 고졸에 차별을 느끼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다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력해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3개 국어를 구사하는 역량을 얻었으나 지금껏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도 짝이 없는 것은 결혼 운이 워낙 없고, 나쁜 사주가 들어서 그렇다 쳐도(지금 상황에선 소개받아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사회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못 할 짓이 아닌가 합니다.

인생의 반이 지나도록 찾지 못한 제 자리, 남은 생에선 찾을 수 있을까요?

A 운명을 헤아릴 때 십이상생(十二相生)에 삼십육금(三十六禽)을 더하여 그 사람의 평생발달과 식록의 방향 혹 산이 좋은지 물이 좋은지 강가나 못 언저리 바닷가 등 동서남북으로 정해진 이치를 알았습니다.

귀하는 ‘산에 호랑이’의 형상으로 뛰어난 두뇌에 의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100년 전에는 호랑이가 한반도 생태계의 가장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역할을 삵이나 다른 동물이 하고 있습니다.

삵은 우리나라 고양잇과 동물 4종 호랑이·표범·스라소니·삵 중에 삵이 남아있으며 태어난 월일에서 인신충·인사형(寅巳刑)이 일어나는데 하던 일을 중도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말입니다.

야생 고양이들의 개체가 늘어날수록 삵은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비견겁재가 많다는 얘기로 즉 경쟁자가 많아 경쟁구도에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늘 경쟁이 많은 고단한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대졸 인력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하여 내수보다는 수출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취업의 길을 잃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계속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열정이란 어떤 달성해야 할 목표의 일을 맡겼을 때 끝까지 도전해서 성과를 내는 자세가 열정입니다. 상사가 지시한 업무를 요구되는 기한에 완벽하게 완료하여 제출하는 자세로서 맡은 바의 프로젝트를 즐거운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서 마치는 자세를 말합니다.

다음은 협업도(업무추진과정에 화합과 협력, 참여성)입니다. 핵가족 단위가 익숙한 청년들은 단체생활을 겪어보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학벌이나 학점, 스펙, 토익점수도 중요시하지만 자원봉사 활동이나 인턴 활동, 서클 활동을 통한 인성을 평가합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노력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10일 (음 6월 26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세요. **60년생**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72년생** 아랫사람을 챙겨주세요. **84년생**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소 **49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61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입니다. **73년생**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85년생** 기분전환이 필요합니다.

호랑이 **50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미루세요. **62년생**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74년생** 현 상태를 사수하세요. **86년생** 내일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토끼 **51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겠습니다. **63년생** 달빛이 하늘에 훤하니 하늘과 땅이 다같이 훤합니다. **75년생**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은 작은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87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용 **52년생** 동서남북이 모두 길방입니다. **64년생** 침착성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76년생** 바라는 것을 너무 이루려고 애쓰지 마세요. **88년생**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원안대로 추진해 나가세요.

뱀 **53년생** 일찍 귀가함이 좋겠습니다. **65년생** 곤욕을 치르다가 귀인의 도움으로 만사해결 되겠습니다. **77년생** 지금은 운대가 약합니다. **89년생** 여색을 조심하세요.

말 **54년생**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66년생** 순탄한 하루를 보냅니다. **78년생** 쌍방이 만족할만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90년생** 감기 조심하고 음식 삼가야 합니다.

양 **55년생** 다툼을 하려거든 내일로 미루세요. **67년생** 시간이 흐를수록 이루어집니다. **79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서둘러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90년생** 마음을 굳게 다지세요.

원숭이 **56년생** 방황을 하던 중 윗사람이 돕게 됩니다. **68년생** 외출을 삼가는게 좋습니다. **80년생** 재물이 생기지 않으면 슬하에 영화가 있을 것입니다. **92년생** 마음이 산란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닭 **57년생** 말을 조심해서 하세요. **69년생** 모든 것이 길한 하루입니다. **81년생** 욕심을 버리고 그 동안의 일을 정리할 때 입니다. **93년생** 모든일을 침착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진행하세요.

개 **58년생** 고민하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70년생** 건강에 주의하세요. **82년생** 물가에서 노는 것을 삼가는게 좋습니다. **94년생** 원대한 소원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1년생** 노력의 대가가 따르는 하루입니다. **83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95년생**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패륜' 넘어서야 할 신동빈의 리더십



염지은의 유통바로보기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터진 '롯데 사태'가 일본 기업 논란까지 부르며 롯데를 사면초가(四面楚歌) 형국으로 몰고 있다.

한때 존경받던 기업인이었던 창업주인 신격호(94) 그룹 회장은 아들의 손에 의해 노욕(老慾)으로 가득찬 초라한 치매 노인으로 추락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19세에 83엔을 들고 현해탄을 건넌 그는 외로운 이국땅에서 갖은 고생끝에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신격호 신화'로도 불렸다. 기업보국(企業報國)의 정신으로 재계 5위의 기업을 일군 존경받는 기업인이었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감명받아 사명을 '롯데'로 지은 순수한 문학청년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업의 총수이자 골육상쟁(骨肉相爭)을 벌이는 두 아들을 둔 노쇠하고 불쌍한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다.

패륜(悖倫)을 각오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데는 속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폐쇄적인 황제경영을 해온 아버지에 대한 개혁의 반기일 수도, 2018년 매출 200조원의 아시아 톱 10 글로벌 롯데를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

아직 이른 판단이지만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는 일단 둘째 아들인 신동빈(60) 회장이 쥔 듯 하다.

그는 형에 이어 아버지도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밀어내고 일본 롯데를 장악했다. 또 경영권 다툼 와중에 아버지 몰래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도 등재하며 한국 롯데도 장악하는 주도 면밀함을 보였다. 아버지의 직인을 위조해서 대표이사가 됐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다.

하지만 롯데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가져갔다고 해서 신 회장의 지속적인 리더십(leadership)이 확보될 수 있을까.

리더십은 리더의 권위를 통해 발휘된다. 조센징이라는 핍박을 극복하고 롯데 왕국을 이룬 신 총괄회장은 일명 '손가락 경영'이 가능했을 정도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졌다. 90이 넘어서도 매일 계열사와 현장을 챙길 정도로 롯데에 열정을 가졌던 그가 남긴 일화는 숱하다.

그런 그의 리더십을, 아버지를 밀어낸 아들이 이어갈 수 있을까.

리더십은 아래로부터의 인정과 신뢰없이는 얻기 어렵다. 아버지의 리더십이 아래로부터의 절대적 신뢰가 기반이 됐다면 아들 신 회장의 리더십은 거래적 관계에서 얻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 계열사 사장단과 노동조합의 지지 선언도 순수한 절대적 지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리더의 역할중 하나는 갈등과 대립을 중재·조정하는 것이다. 형과 아버지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신 회장의 리더십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신 회장의 후계도 벌써부터 논란거리다.

일본 국적을 갖고 군대를 가지 않은 아들 신유열씨(29)씨가 신 회장과 같은 환갑이 되고 신 회장이 아버지와 같은 아흔이 넘었을때 롯데의 후계는 또 어떤 모습일까. 아버지와 삼촌(신춘호 농심 회장)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동주·동빈 형제가 그러했듯, 유열씨가 똑같은 모습을 재현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찜통 더위에 국민들을 더욱 열받게 한 롯데, 신 회장이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선 투명한 지배구조 혁신 이상의 무언가를 대한민국을 위해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패륜 이미지도 벗어야 한다. /생활유통부장

社說

연극은 끝났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숱한 논란과 사연을 남기고 일단 마무리됐다. 합병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 그러니 이제 양사의 합병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그 사이 삼성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한 편의 연극을 벌였다. 우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사업내용이 이질적임에도 그렇게 주장해 왔다. 그것은 마치 물과 은을 더하면 수은을 만들 수 있다는 식의 논리였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길을 닦는 것이었음을 세상은 다 간파했지만, 삼성은 포장하기에 바빴다.

삼성은 이어 소액주주를 존중하는 몸짓을 취했다. 삼성물산은 소액주주들을 찾아다니며 구애작전을 펴는 한편 제일모직은 4000여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일모직은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한 푼도 배당하지 않았고, 삼성물산도 쥐꼬리만한 배당을 했을 뿐이다. 그토록 소액주주를 무시하더니 뒤늦게 소액주주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으니, 이 또한 연극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삼성물산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이하로 내려갔다. 삼성의 연극에다 국민연금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일부 '전문가'의 맞장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만 억울하게 됐다. 어쨌거나 삼성의 연극은 일단 끝난 셈이다. 오는 9월1일 공식합병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삼성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쾌재를 부르게 됐지만, 그런 '행복감'이 항구적으로 지속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합병 회사의 경영실적이 삼성의 공언대로 되지 않거나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합병에 손을 들어준 국민연금과 KCC에도 바늘방석이 기다리고 있다. 나아가 엘리엇을 비롯해 등 돌린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삼성을 대우할지 지켜봐야 한다. 합병을 위한 연극은 일단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공정위, 롯데 허위자료 가릴 줄은 알고 고발 하나?



기자 수첩

김 서 이 <사회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말 롯데 측에 오는 20일까지 해외 계열사 소유실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계열사 지분은 동일인 관련자 지분에 포함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분석작업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9만5033개에서 51개로 잘못 산정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롯데 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14조 4항)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일본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그 회사 주주의 사생활에 속하는 것으로 그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의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의 롯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공정거래법의 법망에 포섭될지의 여부조차 불투명하단 얘기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 측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이다.

롯데 측이 제공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공정위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일문일답에서 "어떤 수단을 통해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대답해 자료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정형화된 수단이 없음을 증명했다.

공정위가 내세운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롯데 측이 모든 순환출자 구조를 뚜렷이 밝히는 자료를 제출할 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실히 증명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 공정위가 검찰에 근거 없이 롯데 측을 고발할 수는 없다. 공정위가 "롯데 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할 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엄포를 놓기에 앞서 롯데 측에 자료의 진위여부를 가릴 현실적인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부동산 매매, 중도포기 가능하나

생활 법률

최근 A씨는 10년 넘게 가지고 있는 땅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얼마 후 땅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 땅값이 올라가면서 A씨는 땅을 판게 후회됐다.

이런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서에는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이 특약사항에 따른 해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만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잔금 지불의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라는 의미다.

통상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동일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주면 된다.



그러나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가 아닌 경우도 많다. 3억원에 부동산을 팔기로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이행을 확실하게 하려면 계약금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부추기는 바람에 계약금을 20%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때는 5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해약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

토지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많이 주는 것이 계약 파기의 위험을 줄이는 길이다. 반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매도인도 계약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인 사

■ 관세청

△국장급 파견 ▲미국 관세국경관리청 김광호 △국장급 전보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조훈구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방역관리과장 김용상 ▲원예산업과장 박정훈 ▲국립종자원 조일호 ▲외교부 전출(주중국대사관) 최정록

■ 외교부

△과장급 ▲창조행정담당관 강수연 ▲외교통신담당관 배일영 ▲외교사절담당관 장호승 ▲서유럽과장 조기중 ▲중동1과장 김일응 ▲영토해양과장 이동기 ▲문화예술협력과장 김재우 ▲재외국민안전과장 이재용 ▲G20경제기구과장 김윤정 ▲기후변화환경과장 조계연

■ 통일부

△과장급 전보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장 이승신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장 김영일

■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수산자원정책과장 장묘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윤석홍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 조성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 정조형 ▲국립수산과학원 박환준



제주도에서 가장 탐나는 자리인 서귀포 혁신도시와 강정택지지구 사이 –
세계 8대 호텔체인이 드리는 글로벌 호텔의 고수익 투자가치를 잡으십시오
밸류호텔월드와이드 서귀포JS 분양개시
다 드립니다
부대시설 : 실내수영장 / 사우나 / 휘트니스 / 고급컨벤션 /카페 테라스 / 호텔뷔페
Value Hotel Worldwide by Vantage
Seogwipo JS
10년간 안전보장(공증)
10년간 연 15% 수익보장
(대출 50%기준, 이자5%이내 포함)
10년간 대출이자 전액지원
준공 후 100% 환불보장
(5년 후 부터 적용)
서귀포시청 제2청사
종합경기장
헬스케어타운
서귀포관광미항
천지연폭포
서귀포 혁신도시
월드컵경기장
이마트
강정택지지구
중문관광단지
강정 민군 복합미항
年10% 10년간 수익보장
年5% 10년간 이자지급
안전보장 공증
분양가 100% 환불
50% 중도금 무이자
서귀포 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 이전, 연 15% 확정수익 [대출 50% 기준, 5%이내 이자포함], 세계 8대 호텔체인의 운영노하우
제주의 모든 가치를 담은 고수익 호텔–밸류호텔월드와이드 서귀포JS
FUTURE OF ISLAND
위치가 그대로 투자수익으로 이어지는 제주 최고의 자리!
서귀포 혁신도시 앞에 미래가치가 집중됩니다
INVESTMENT OF ISLAND
최대 연 15% 확정수익을 드리는 고수익 호텔!
제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선사합니다
HIGHCLASS SERVICE
세계 8대 호텔그룹의 운영노하우와 서비스!
세계적인 전문 운영·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 약 금 안 내
청약계좌 : 외환은행 630-009732-071
청약금 : 100만원 예금주 : 아시아신탁(주)
02)2097-8840
·위치 : 서귀포시 법환동 745–5번지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 1,277.30㎡ ·규모 : 지하4층~지상10층 ·건축면적 : 938.42㎡ ·건폐율 : 73.47%(법정 : 80%) ·연면적 : 11,565.86㎡ ·용적률 : 701.00%(법정 : 1,000%) ·주차장 면적 : 824.08㎡
·외부마감 : 제주석, 화강석, 복층유리 ·주차대수 : 72대 설치 / 장애인주차 3대 ·공개공지 : 89.46㎡ (법정 : 1,277.30x7% = 89.41㎡ 이상)
·조경면적 : 208.25㎡ (법정 : 1,277.30㎡x 15%=191.60㎡ 이상)
·상기 위치도, 조감도, 단지조감도, 이미지사진, 아이소,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시행사 | (주)진성인터내셔널
| 시공사 | CHEONMA 천마종합건설
| 신탁사 | 아시아신탁
| 운영사 | Value Hotel Worldwide 밸류코리아
| 마케팅사 | (주)세종피엠씨